

10)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기 보다는 떳떳한 죄인이 되기를...

고대성

가) 사건개요

고대성 일병은 육군 제11사단 9연대 4대대서 근무하던 군인으로 1991년 8월 12일 범민족대회에서 남북간의 상호 군축, 분단조국의 군인의 임무는 조국의 평화적 자주통일에 기여하는 것임을 천명하며, 양심선언, 현재 수배중인 상태

나) 신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1970년 8월 20일 (700820-1023920)
본적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74-51
현주소 : 인천시 북구 삼산동 267-11, 13동 4반
복무사단(주소) : 11사단 9연대 4대대(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2리 사서함 14호)
계급 : 일병
가족사항 : 3남 2녀중 막내, 편모

다) 양심선언문

저는 1991년 2월 군대에 입대한 군인입니다. 군입대 전 외세에 예측된 독재정권의 군인이 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지켜야 하는 국민과 국가는 외세와 독재정권과 독점 재벌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민족해방과 민중해방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려했던 저에게 군사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그리고 4천만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의 염원에 군사독재정권과 군대가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를 알고있는 저로서는 군인이 되기 보다는 떳떳한 죄인이기를 택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노동운동, 학생운동, 참교육운동, 자주적 평화 통일운동 민중과 함께 하려는 종교운동등 모든 민주화 양심세력을 좌경, 폭력, 혁명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와 87년 6월 민주 항쟁 91년 5월 항쟁에서의 비상 출동 대기 명령에서 보여지듯이 군사 독재 정권의 군대는 분단 이데올로기와 멸공의 대의 명분 앞에서 모든 민주화 운동을 압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제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는 외세와 군사독재정권의 자유민주주의에 불과하며 제가 수행할 민족 통일은 멸공 복진 통일에 불과합니다. 외세에 의한 분단 조국에 이땅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그들의 청춘을 반민주, 반자주 통일에 바치고 있습니다. 분단 조국의 군인으로서 제가 수행할 가장 큰 임무는 조국의 평화적 자주적 통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범민족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수행해야 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외세로부터의 해방이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입니다. 조국의 자

주적, 평화적 통일의 축제인 범민족 대회에 참가한 애국 군인으로서 저는 당당히 선언합니다.

1. 애국군인 양심선언 정당하다. 애국병사 탄압하는 군당국은 각성하라!

2. 조국 통일 가로막는 반북이데올로기 주입교육, 정훈 교육 폐지하라!

3. 조국통일 가로막는 주한 미군 철수하라!

4. 남북 상호 감군으로 평화통일 앞당기자!

11) 군 부대내 부재자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

이지문

가) 사건개요

이지문 중위는 92년 3월 20일 공선협 사무실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4대 총선에서의 군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폭로함. 이는 한국군의 역사상 최초로 2,000여명의 병사들이 투표부정 행위를 폭로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 중위는 현재 불명예 제대 상태에서 공선협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신상

소속 : 육군 보병 9사단 28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
계급 : 중위
군번 : 19-12541
직책 : 소대장
성명 : 이지문(李智文)
연령 : 24세(주민등록번호 680622-1110015)
부산출생. 서울에서 자람. 91년 고대 정외과 졸업과 동시에 학군 29기로 소위 임관.

다) 증언 경위

본인은 보병 소대장으로 있는 현역 군인으로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군 부재자투표에서 심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 공명선거에 막대한 훼손이 있었다는 점에서 군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본인은 이에 따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군 부재자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참관인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이러한 요청을 하게된 이유는 이번

군 부재자투표에 있어서 직접 겪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입니다.

라) 증언 내용

1. 정치적 중립에 역행하는 정신교육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된 우리 대대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에 앞서 중대장에 의한 정신교육이 행해졌습니다.

먼저, 연대장이 대대원들에게 다른 교육을 시키던 도중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32%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자 북한의 대남방송에서 '30%짜리 대통령은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집권 야당에게 투표함으로써 정치안정과 통일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간 비쳤습니다. 대대장은 전간부회의 (하사관급 이상의 간부)에서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대급 이상에서는 직접 노골적으로 대원들을 상대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같은 정도의 언급만 하고, 노골적인 압력과 대원 교육은 중대장급에서 이루어져서 사후에 일이 생기더라도 하급 지휘관의 과잉 충성이었다고 간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별 투표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한 중대는 투표자가 약 100명 내외, 본인 소속중대는 97명) 중대의 여당 지지율이 적어도 80%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중대장에게 대대장이 교육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즉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다른 중대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대원들에게 중대장이 직접 교육시켰는데, 그 방식은 '4월 10일경에는 있을 고과평점에 투표의 여당 지지율이 반영되므로 인간적인 에서 나(중대장)를 봐서라도 여당을 찍어달라'는 식의 호소성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근무하는 중대인 6중대의 중대장(대위 김병수)은 대대급에서 내려온 이러한 정신교육 지침을 실시하지 않고 선거에 대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중대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김병수 중대장은 3월 4일경 「선거법 발달과정, 올바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한 교육을 본인을 시켜서 대원들에게 실시한 적도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공명선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대대장이 중·소대장을 불러서 관

한 일을 뒷하려 하느냐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일 오후에 기무대 사단 파견 반장(계급 : 대위-이름은 모르지만 얼굴과 출신은 알고 있음-보안반장 [군단에서 사단 기무과 견대])이 중대에 찾아와서 중대장과 면담한 후 바로 중대장이 중대원들을 집합시켜놓고 정신교육, 즉 "자신도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현실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에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여당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대대에서 제가 속해 있는 중대만 정신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며 3월 18일에 본인을 포함하여 16명이 자기 판단하에서 투표를 하였지만, 나머지 약 80명의 투표를 앞두고도 계속 중대장이 정신교육을 하지 않자 사단 기무과견대(보안반장)가 19일 오후 중대장을 찾아와서 1:1 면담을 실시하였고 바로 그 직후 중대장이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2. 투표에 있어서 공공연한 공개투표 행위

먼저 군 부재자투표 방식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보통 각 중대별로 적당한 곳(보통 간부연구소)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장교 포함 계급별로 한명씩을 참관인으로 하여(참관인은 총 6명)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연대 인사과장이 (계급 : 소령) 무장 헌병을 동반하여 투표봉투를 한꺼번에 수거해서 발송합니다.

우리 중대에서는 중대장의 정신교육은 있었지만, 중대장이 참관인인 본인에게 기표소에서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시하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접 중대인 본부중대의 경우는 인사계(상사)앞에서 공공연하게 공개투표를 하였으며, 20일 20시 30분경 대대급 학군장교들 모임을 갖고 있던 문산 국제취폐에서 선거에 대한 이런저런 말을 나누던 중 본부중대장이 "우리

중대는 단 두표만 제외하고 다 여당표다"라는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7중대의 경우 중대장이 계급별로 몇명씩 불러 여당을 찍으라고 하였고, "의리가 있는 놈은 투표용지를 내 앞에 갖고 와서 '저 1번 찍겠습니다' 하고서 1번에 기표하더라"고 의리 측면에서 발언하였습니다. 5중대와 8중대의 경우에는 기표소에서 중대장이 "1번 찍어라"라고 하여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5중대 참관인(장교)을 통해 여당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 중대는 80%가 충분히 넘었다"고 5중대장이 직접 말했습니다.(위는 학군장교 모임에서 본인이 해당 중대장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임)

3. 투표 후 투표봉투 발송 등 처리과정상의 문제

부재자투표함 투표봉투의 발송 책임을 실질적으로 기무과견대(보안반장)에서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연하게 "투표행위를 서신 검열기를 이용해 중대별 대대별 표본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이 투표율을 가지고 4월 10일 경 있을 장교 고과평점(진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대장이 20일 오전 10시 30분경 본인 불러 "왜 너희 중대는 정신교육을 늦게 실시하느냐. 소대장이 나서서라도 해야 하지 않았느냐. 집단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로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면서 "네가 누구를 찍었는지 내가 연대에 가면 다 알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 그날 저녁에 있는 학군장교모임에서 본부중대장이 발언하기를 "대대장이 '간부들은 다 1번을 찍을 줄 알았는데 한명이 2번을 찍었더라'면서 섭섭해 하더라"고 하였고, 본인이 속해 있는 6중대의 중대장은 선거때문에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소대장들과 상의하면서(기무과견대

가 오기 바로 전에 있던 일) "투표결과가 중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중대에 초래될 불이익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하면서 고민하였습니다.

4. 정기외출, 외박 통제

매주 주말에 있는 사병 정기 외출, 외박 및 면회 외출, 외박에 대해 사단에서 14일과 21일 두번에 걸쳐 전면 금지시켰고, 21일에는 사단 지침으로 「면회사병들에게 이번 사건에 관한 정신교육을 시킬 것(입조심하는 내용)」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군단 파견 보안반장의 개입 등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사건이 단지 우리 대대 차원에서 대대장의 과잉 충성으로 빚어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1. 부재자투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외부 참관인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대급에 한 명씩의 외부참관인을 내보냈을 경우 전국적으로(육군의 경우) 약 8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육군이 60만명으로서 전체 유권자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투표가 행해진다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 간의 득표 차이가 약 90만 표정도였음을 상기할 때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참관인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2. 투표를 마친 후 투표봉투 발송이 군대 라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 참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표행위에 공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투표 행위 전의 정신교육에서 "결과가 실질적으로 중대별로 나온다"고 압력

을 가할 수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된 동기

군의 정상적인 지휘 계통에 따라 개선책을 건의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심의 판단에 의해 <공선험>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의 이같은 요청과 사실 증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군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본의 아니게 양심에 저촉되는 투표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교육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반민주주의적인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현실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도록 만든다는 점)과, 이러한 부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 '양심의 집단 무감각 증세'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현실과 약간씩은 타협하

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탱해 가는 가장 기본인 민주주의 선거의 공명성, 자유·비밀의 대원칙마저 지켜지지 않는 현실까지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저의 마음이 왜곡됨 없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군무를 이탈하거나 군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즉시 부대로 복귀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인간적인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정의와 의리의 차원에서 정의를 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깊은 고뇌와 갈등 끝에 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추후 이 증언에 대해서 번복하는 경우가 만일 하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진의와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1992년 3월 22일 20시
위 증언자 이 지 문

12) 굴욕적인 침묵을 거부하며.....

조정희

가) 사건 개요

조정희 일병은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사건」과 관련하여 기무사에 의해 구속 되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뒤 92년 9월 28일 연세대학교에서 이의 사건이 기무사의 고문수사, 밀실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폭로. 현재 수배중.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사건」은 91년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조직 사건」,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그리고 92년 5월 「안양지역 자주학생운동연합 사건」 등과 같이 기무사에 의한 학생운동 탄압 속에서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아직도 기무사가 대국민 불법사찰과 병사들에 대한 감시통제, 녹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 신상

조정희일병(68년 2월 5일생, 단기사병) 약력
86년 대전상고 졸업
87년 한남대 국문과 입학
90년 한남대 문과대학생회장
91년 10월 7일 제32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육군본부로 발령후 신원조회 탈락으로 제 32사단 505여단 중구관리 대대 기동중대로 전출
92년 7월 25일 기무대 연행, 이후 기소유예로 석방
92년 9월 28일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양심선언후 건대 총학생회실 앞에서 단식농성 시작

다) 양심선언문

기무사-안기부 조직사건 고문조작 폭로 및 군의 정치적 중립요구 양심선언문

지난 7월 25일 대전에서 발생된 「민족한남활동가조직」사건은 군내의 가혹행위와 밀실수사에 의해 조작된 허위임을 명백히 증언합니다.

본인은 지난 7월 28일 충남경찰청 발표에 의해 보도된 바 있는 소위 「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에 연루되어 불구속 기소유예로 풀려난 육군 제32사단 505여단 중구관리대대 기동중대 소속 조정희일병입니다.

본인은 조사 기간중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 행해지는 가혹행위와 신

변 위협에 따른 심적 위축으로 인해 허위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된 선후배, 동료들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사건 자체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안기부-경찰청의 음모임이 명백한 이상, 굴욕적인 침묵을 거부하고 양심선언의 길을 택합니다.

온갖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며 나라의 정의를 구하고자 했던 윤석양이병, 이지문중위를 비

릇, 한준수 전 연기군수님의 용기가 오히려 탄압과 구속의 족쇄에 묶이고, 책임자는 버젓이 자리를 지키는 통탄할 현실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저의 양심선언으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고, 진상이 파헤쳐지는 시급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1. 조사기간중 군내 가혹행위와 신변위협이 심적부담으로 사실을 허위자백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무죄석방되어야 합니다.

7월 25일 오전 9시경 대대 ATT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여 물자정비를 하는 중 본인은 3명의 기무대 수사관에 의해 승용차로 기무부대로 연행되었고 27일 오전 10시경까지 약 49시간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 후에도 약 7일간 오전 8시 경부터 오후 10시까지 출퇴근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외부로부터 완전 차단된 가운데 끊임없는 신변 위협속에서 그들이 제시하고 강요하는 조작내용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과 무관한 조작이며 안기부-기무사의 불법연행, 강제구금, 밀실수사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므로 구속·수감된 관련자는 전원 석방되어야 하며 그 조작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합니다.

2. 조사내용이나 수사방식에서 최근의 간첩단 사건과 그 유형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김남중 씨 사건과 조선노동당 남부지역당 사건 또한 조작의 의혹을 질게 합니다.

「민족한남활동가조직」사건은 진상을 규명하려는 학교, 동문, 가족들의 조작 증거제시와 반발에 부딪혀 조사내용에 비해 상당부분 축소된 경찰청의 형식적 발표입니다.

저를 비롯한 13명의 관련자는 조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증 발급여부’, ‘혈배식 거행’, ‘김일성만세 플래카드 게시 여부’ 등의 진술을 강요받았습니다. 대중적 반발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허위내용을 근거로 대규모 학원간첩 사건으로 확대·발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것은 불법연행, 강제구금, 밀실수사로 일관하는 안기부-기무사의 전횡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정권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해왔습니다. 「민족한남활동가조직」사건 역시 이같은 정치적 술수인 것입니다. 안기부-기무사의 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규명해야 하며 국민감사, 탄압기구인 안기부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 선거에서 군내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한준수 전 연기군수님의 양심선언에도 밝혀졌듯이 집권을 연장하려는 민자당의 행각은 시·군·구에서 말단 행정조직 공무원들까지 수족처럼 움직이려는 대대적인 관련 개입·부정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제가 소속한 대대에서 3.24총선당시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부대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군 부재자 투표부정을 고발한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윤석양이병, 한준수 전 연기군수님을 비롯한 양심선언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사회에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위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2년전 보안사의 대민 정치사찰을 폭로한 윤석양이병, 군 부재자 투표부정을 밝혔던 이지

문중위, 대규모 관권 선거의 실상을 폭로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님등 지금까지 47명에달하는 양심선언은 우리 사회의 부정과 어둠의 실상을 밝혀 실질적인 개선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댓가로 양심선언자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철창과 끝없는 수배입니다.

진정한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군·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윤석양이병, 한준수 전 연기군수등 구속된 모든 양심선언자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수배자는 수배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의로운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가 뒤따라야 합니다.

본인은 군대는 더이상 인권유린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되며 하루아침에 직장 가정에서 끌려와 이적단체의 조직원으로 둔갑당한 채 수감되어 있는 13명의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본인의 양심선언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구속자 전원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인해 가슴에 피멍이 든 구속자의 부모님들과 저의 부모님께 양심을 지키지 못한데 사죄를 드리며 이 사건은 반드시 그 진위가 밝혀지리라는 용기와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2년 9월 28일 조정희

나의 주장

1. 「민족한남활동가조직」사건으로 구속·수감된 관련자는 전원 무죄석방하고 조작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2. 간첩단 조작·정치 개입하는 국민감시 탄압기구 안기부·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3. 군의 민주화·공정선거,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4. 윤석양이병, 한준수 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선언자는 즉각 석방되고 수배해제 되어야 하며 법적인 보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무사-안기부의 계속적 조작이 진행되어지고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조작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밝혀지는 시점에서 자진 복귀할 것입니다.

기무사의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수사내용과 방식

1. 수사내용

◎ 1일째(7월 25일)

-조직원 인정 강요

89년 동학사 산수정 식당에서 있었던 학생회 임원 수련회를 조직원들의 합숙이라 인정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수감중인 이광기의 수사자료 복사물을 가져와 본인의 진술서에 넣기를 강요하여 조직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읽은 서적과 3년간(88, 89, 90) 참석한 조직원 집회 심문

사서 읽지도 않은 서적을 불법 압수하여 책의 내용을 적으라하여 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정리하기도하고 기무사 수사관들이 직접 써서 본인이 진술서에 옮겨 적기도 하였습니다.

-88년 이후 90년까지의 조직원 집회에 모두 참석했다고 하라고 강요하여 부인했으나 소용 없었습니다.

◎ 2일째(7월 26일)

-조선 노동당증, 가입원서, 강령·규약, 혈배식에 대해 증거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불었다. 그러나 인정하라고 강요하여 증거물 제시를 요구하자 사람을 놀린다고 폭언을 하였으며 고문의 위협을 하였습니다.

-88년 이후 90년까지의 조직원 집회에 모두 참석했다고 하라고 강요하여 부인했으나 소용

없었습니다.

◎3일째(27일)

-전날의 심문내용을 다시 강요하였으며, 부인하자 오전10시경 풀어주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의 수사내용

-그것은 짜맞추기의 과정이었습니다.

-「민족한남활동가 조직」에 본인을 문과대 조직원으로 조작하여 이광기, 정순용, 한동인 등의 주동적 역할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였으며, 본인은 고문의 위협과 가족의 신변 위협에 굴복하여 자포자기적으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총책(?)이 89년 총학생회장이었던 임봉철로부터 정순용으로 변했으며 진술서 내용을 다시 고쳐셨습니다.

2. 수사방식

-8월 25, 26, 27일, 2박 3인간의 조사중에는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았습니다. 25일에는 3시간, 26일에는 2시간 정도였으며, 대대훈련으로

극도의 심신피로로 인해 잠을 24일 저녁에는 잘 수 없었습니다.

-이광기의 진술서 복사본을 가져와 본인의 진술에 넣기를 강요하였습니다.

-고문의 위협과 가족의 신변 위협이었습니다.

(기타 3.25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편집자 주)

◎중구관리 대대장(중령 주장식)이 부대내 정신교육시 안정된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여당 찍기를 암시.

◎3.24 총선전 대전시 서구 관저동 예비군교장에서 실시된 '집중정신교육기간에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주입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김홍만 후보가 대대원 전체가 보는 가운데 대대장과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며 선거운동, 약 5분간 관저동 예비군 교장에 머물다 감.

4) 경찰(전경) 양심선언 자료

1) 경찰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참회록

이병무

가. 사건개요

88년 1월 26일 경찰민주화를 위한 참회록으로 양심선언.

나. 신상

소속 : 충북 충주 경찰서

계급 : 경위

직위 : 수사계장

약력 : 경찰대학 1기생

다. 참회록

요즈음 갈아선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의 심정으로 때로는 십자가를 진 예수의 고통받는 아픔으로, 비난의 대사이 되는 조직에 이생의 승부를 걸고 뭔가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일종의 비애감마저 느낀다.

1985년 4월 9일. 조국에 내 한몸 바쳤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익혔던 4년간의 경찰대학 생활을 뒤로 하고 우리나라의 경찰을 세계 제일의 경찰로 만들어야겠다는 용지를 품고?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국민을 위한 경찰, 민중의 지팡이로서 진정 떳떳하고 보람된 일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각종 시국집회의 현장에서, 반정부시위의 맞은 편에서 과연 누구를 상대로 개스총을 쏘면서 돌을 맞고 화염병 세례를 받았는가? 그들은 내 부모형제요 같은 국민이 아니던가?

1987년 6월 10일 명동성당 앞에서 시위군중의 어떤 시민이 던진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

에 못을 받는다.

『야! 이 X X들아,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오죽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그런데 있냐? 너희들도 동참해라. 동참해!』

그렇지만 나를 비롯한 우리들은 분명한 신념이 있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나서서 돌을 맞아야지. 우리가 무너져선 절대 안돼. 그건 공군의 투입을 의미하고 그것은 계엄령이나 위수령.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엄청난 후퇴를 가져온다. 버티자.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가도 버티자. 그리고 막아내야 한다. 그것이 「임무」다. 우리는 버텼고 그리고 막아냈다. 그리고 「6.29」가 온 국민을 맞이했다. 힘겨운 소용돌이가 끝난 것인가?

보인다. 약속된 장래가 보인다. 평화적 정부 교체도 보이고 88올림픽도 보인다. 그러나 우리 경찰조직엔 아직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 전체가 사회 각 분야가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 차 있고 발전과 번영의 내일을 향해 줄달음 치고 있는데, 유독 우리경찰은 갈수록 명만 들

어간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과연 경찰은 이 나라에서 정말 필요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조직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조직임에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내가 배운 바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찰은 국가 형성기부터 필수불가결하게 형성되고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 보호하고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 오늘날 거둬거둬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경찰의 자질부족」이라는 단골용어로 치부해 버리고 말 것인가?

경찰 스스로는 반성하고 있는가? 특히 경찰 고위층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고 있는가? 만일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왜 아무런 말도 없는가? 전치안총수가 형사피의자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내 하나 자리지킴에 이상이 없으면 만사 O.K란 말인가? 경찰출신 선량들은 국회에서 무얼하고 있는가? 경찰을 모르는 사람을 그렇다치고 알만큼 알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 전부 병어리라도 되었던 말인가? 경찰이 오늘날 이 지경이 된 데 대해 원인

분석이라도 해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가? 만일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보았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계의 경찰, 특히 선진국의 경찰, 민주화된 나라의 경찰은 어떤 모습인가? 그들 나라의 경찰이 아직까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경찰이 박대받고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경찰기구의 독립과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국내의 많은 석학들이 그 논지를 분명히 밝힌 적이 많이 있고 수차에 걸쳐 각계 각층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알고나 있는가? 만일 알고 있었다면 경찰을 독립시키지 않고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욕재계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사람의 경찰관으로써 노태우 대통령당선자에게 감히 묻고 싶다.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데 당신도 같은 생각입니까? 만일 같은 생각이라면, 과연 언제까지 경찰을 「정치적 시녀,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시겠습니까?』

1988. 1. 26

충북 충주경찰서 수사계장, 경위 이병무배상.

2) 독재에 고향

양승균

가) 사건개요

87년 7월 8일 NCC 인권위원회에서 “독재에 고향”으로 양심선언후 탈영. 그후 『전경해체 투쟁 위원회』에서 활동중 89년 7월경 체포되어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위반,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이적단체구성)으로 구형징역 7년 선고징역 2년을 받았다.

나) 신상

주소 : 경기도 용인

소속 : 경기도 이천 경찰서 타격대

계급 : 상경

생년월일 : 65. 11. 15

학력 : 84년도 용인 태성고 졸

85년 10월 30일 입대

다) 양심선언문

역경과 시련속에서 우리 국민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일제 36년 이승만정권 이후 26년의 군부독재는 끊임없는 민중의 항쟁으로 종말을 고하고 있다. 허나 우리는 그 시체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아니 그 시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가야할 민중민주주의의 길은 멀기만 하다. 군부독재와 매판자본에 억압당하며 신음해온 민중의 생존권을 뒤로한 채 수많은 민주학생과 민주시민의 고통을 뒤로한 채 아직도 미제의 하수인으로 민족자립 경제와 민족의 생존권을 뒤로한 채, 민족통일의 대업을 뒤로한 채 독재는 무얼 주저하는가. 6.29 선언을 그대들이 국민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중의 투쟁으로 만든 누구하나 빠질 수 없는 대중의 힘의 열매이다.

그대들의 생존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민중의 희생과 피를 원하는가? 그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빈 마음이 될 때, 국민은 그대들을 용서할 것이다. 만약 대중의 삶이 우선 순위가 아니고 그대들의 삶의 우선 순위라면 그대들은 대중의 저항앞에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를 마칠 것이다. 끝으로 본인은 원하지 않았던 전경에 차출되어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통속에서 살았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경찰의 임무는 80%가 봉사로 알고 있다. 경찰은 조소하는 그 대중앞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제 5만 경찰과 7만 전경도 경찰권 독립이 민주화의 첩경임을 알고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 운동을 벌이자. 이것이 민주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의 마지막 기회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1987년 7월 8일

양승균

3) 양심의 두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연성흠

가) 사건개요

88년 1월 28일 NCC 인권위원회에서 양심선언문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백만 학도에게 드리는 글' 등을 발표하고 양심선언후 탈영.

그후 『전경해체 투쟁위원회』에서 활동중 89년 6월 체포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나) 신상

주소 : 강원도 홍천
소속 : 서울 201 전경대 제 39중대
계급 : 일경

생년월일 : 64년 7월 25일
약력 : 85년 감리교 신학대학 신학과 3년 제적
87년 7월 입대

다) 양심선언문

저는 제 201 전경대(서울시 경찰국 제 39기 동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전투경찰 순경 일경 연성흠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탈영이라는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러나 양심의 두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역사의 한모퉁이에 섰습니다. 저의 작은 소리, 양심의 소리는 독재의 귀에는 들릴리 없지만 2,000여 광주민중의 송고한 낫과 더불어 애국적인 민중의 양심, 거대한 역사의 함성으로 하나되어 밀려가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직 사과탄 한 번 던져보지 못한 햇병아리 전경이지만 조국의 자주와 민주,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이땅의 같은 젊은이로서 애국적인 학생들과 서로 피를 흘려가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싸워야만 하는 이땅의 어두운 현실이 안타까웠고, 저와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투경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역사의 멍애를 두 어깨에 짊어진 채 독재의 꼭두각시로서 국민의 애국적인 양심에 대적하여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이상 이 시대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전투경찰이란 무엇입니까? 왜 이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것도 의무적으로 국민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투경찰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1. 전투경찰은 신성한 국민의 의무일 수 없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군부독재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은 민주화의 시대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재에 항거하는 국민의 애국적인 투쟁을 살인적 최루탄과 곤봉 등 폭력으로 짓밟아야만 하는 이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은 그 누가 책임져줄 것입니까? 그 모든 국민의 애국적 양심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양심, 독재에 의해 유린당한 우리의 애국적 양심을 되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젊은이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은 바로 독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군인도 경찰도 아닌 전투경찰

이라는 허울속에 국민을 대적하여 싸워야만 한다는 현실은 바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망국적 군부독재 정권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모든 국민의 애국적 양심은 이땅의 젊은이들이 독재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것을 더이상 묵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민주주의 압살하는 망국적 군부독재 정권의 사병조직, 전투경찰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억압과 질식,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의 애국적인 투쟁이요 역사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이어지는 망국적 군부독재 정권은 집권 당시부터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유지와 영구집권을 위해 폭력경찰의 물리력에 의존하여 애국민주세력을 폭압적으로 탄압하여 왔습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 민권에 대한 제요구는 독재의 꼭두각시 폭력 경찰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였으며, 애국적 학생들의 가까운 젊음이 살인적 고문과 살인적 최루탄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더우기 전투경찰은 독재의 최전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애국적인 열망과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의 염원을 철저히 폭압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투경찰은 독재의 충실한 사병조직으로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애국적인 항변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 폭력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또한 전투경찰은 그 조직 자체내에 뿌리깊게 온존하는 폭력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대원들간의 사적 제재들이 성행하여 구타와 기합등에 의한 죽음, 자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자아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폭력성은 경희대 여학생 추행사건, 건국대 만행사건, 그리고 최근의 구로만행 사건등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데모진압시 독재정권의 비호하에 무차별 구타와 폭행 등으로 표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땅의 민주주의를 이러한 폭력경찰에게 더이상 유린당할 수는 없으며 독재에게 빼앗길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1년에 거의 일천여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전투경찰이, 그것도 국민을 대적하여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땅의 하늘을 최루가스로 물들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저는 군부독재 정권의 사병이길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는 더이상 국민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독재의 꼭두각시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적 최루탄의 추방과 더불어 민주주의 압살하는 망국적 군부독재 정권의 사병조직 전투경찰은 해체되고 그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더이상 국민들 대적하여 싸울 수 없다.
- 양심있는 애국적 전경들이여 총 쫓기하자!!
- 전투경찰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일 수 없다.
- 독재의 꼭두각시 전투경찰, 백골단 해체하라!!
- 망국적 군부독재 정권의 사병조직
- 민주주의 압살하는 전투경찰 백골단 해체하라
-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대국민 탄압의 도구
- 애국민주세력 탄압하는 폭력경찰 해체하라!!
- 살인적 최루탄을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하자!!

제201전경대(서울시 경찰국 제 39중대) 연성흠

라) 백만학도에게 드리는 글

일제하 36년 찬란히 타올랐던 애국적 민중들의 반제 반봉건 민족해방투쟁의 정기를 이어받은 이땅 한반도. 그러나 자주적인 통일민주정부수립의 염원이 무참히 유린당한 채 양키와 쪽바리에 의한 분단 44년의 역사적 질곡은 저혹했던 18년간의 유신통치에 이어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이어지는 망국적인 군부독재정권

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심화되어지는 억압과 질식의 탄식은 살인 고문과 공작정치, 살인적 최루탄과 관제언론의 기만적 여론에 사라져 갈 뿐, 소외받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대다수 민중의 민주적 제권리와 양심있는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의 애국적 충정은 저 차가운 감옥속에서 울려퍼지고 국민의 입술과 귀, 양심을 도려내는 독재의 시퍼런 비수만이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시대의 양심, 민중의 애국적 항변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 누가 있어 감히 동강난 한반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려하고 있습니까? 살아 역사하는 민중의 애국적인 투쟁, 민주주의는 암울한 이 시대에 있어 우리에게 최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리와 불의 앞에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더불어 함께 투쟁할 것입니까? 전국의 백만학도여 감히 제의하나니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질타와 불신, 패배주의를 불식하고 이땅의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봅시다. 지금은 우리 모두 대동단결하여 반독재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때입니다.

1. 독재에게 빼앗긴 민주주의는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억압과 질식,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의 애국적인 투쟁이요, 역사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군부독재 정권은 이미 철저히 계획된 부정선거의 자행과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여론 조작, 국민적 저항에 대한 폭력경찰의 무차별 탄압등으로 우리에게서 민주주의를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어찌 저들의 망국적자태를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간악한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양김씨의 단일화 실패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한걸음 뒤로 물러나와 비통해

지지 맙시다. 민주주의를 노태우일당에게 도둑맞은 것은 결국 양심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닙니까? 우리는 더이상 민주주의를 독재의 손아귀에 방치해 두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군부독재투쟁의 선봉에서 우리의 애국적인 충정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이미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간 숭고한 녀과 더불어 우리의 애국적인 양심의 소리를 하나로 결집하고 진정 이땅의 자주적인 민주정부의 수립과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힘찬 진군을 계속합시다. 독재에게 빼앗긴 민주주의는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2. 민주주의의 압살하는 대국민 탄압의 도구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사병조직 폭력경찰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전투경찰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일 수 없습니다. 군에 입대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독재의 사병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자신들의 양심과는 무관하게, 독재에 항거하는 애국민주세력을 최루탄과 곤봉등 폭력으로 탄압해야하는 이 시대에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전국의 백만학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언제까지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서로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양심, 독재에 의해 유린당한 그들의 애국적 양심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이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독재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등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적 제권리와 이땅의 양심있는 모든 이들의 애국적 항변이 폭력경찰의 살인적 고문과 최루탄에 의해 유린당할 수 만은 없습니다. 1년에 1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경찰이 그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치안부재 현상까지 초래하면서 오로지 군부독재의 정권안정과 영구집권을 위해 국민의 애국

적인 양심, 민주주의를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민중의 지팡이는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를 이러한 폭력경찰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살인적 최루탄의 추방과 더불어 망국적 군부독재정권의 사병조직인 전투경찰, 백골단 등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대국민 탄압의 도구, 폭력경찰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다같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합시다. 동지들의 건투를 빕니다.

- 더이상 국민을 대적하여 싸울 수 없다.
- 양심있는 애국적 전경들이여 총필기하라!!
- 전투경찰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일 수 없다.

독재의 꼭두각시 전투경찰 백골단 해체하라!!
-망국적 군부독재 정권의 사병조직, 민주주의의 압살하는 전투경찰, 백골단 해체하라!!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대국민 탄압의 도구 애국민주세력 탄압하는 폭력경찰 해체하라!!
-살인적 최루탄을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하자!!
-군부독재 타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자!!

제201전경대(서울시 경찰국 제 89중대)
일경 연성흥

4) 온순한 사람을 가장 열렬한 투사로 만드는 역설의 시대

노재학

가) 사건개요

1988년 6월 25일 NCC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더이상 미제와 친미군사파쇼정권의 개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하에 *반외세 자주화투쟁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 촉진투쟁 *군사정권의 철저한 사병조직인 전경해체투쟁 등의 내용으로 양심선언. 그후 『전경해체투쟁위원회』에서 활동중 89년 6월에 체포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전경설치법위반, 국가보안법 등으로 2년형을 선고받음.

나) 신상

주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속 : 서울시경 동대문 지구대 8중대
계급 : 상경
경력 : 부산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4년 제적. 총학생회 학술문화 부장

다) 양심선언문

-이제는 더이상 미제와 친미 군사파쇼정권의 개가 될 수 없다-

82년 마산고등학교를 졸업, 부산대에 입학한 저는 꽤나 촌티나는 조용한 대학생일 뿐이었습
니다. 82년 3월의 문부식님과 학교 선배님에 의해 점화된 '부산미문화원 방화투쟁'때에도 2천

여 광주 애국시민을 총칼로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파쇼정권의 악랄한 선전과 관제언론의 왜곡보도에 의해 거짓을 진실인양 믿으며 오히려 선배님들의 과격성을 탓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미 군사정권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소시민으로서의 학생마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온순한 사람을 가장 열렬한 투사로 만드는 역설의 시대였습니다. 84년 초에 진행된 학원 자율화 조치등의 기만적 유희국면 속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부미방투쟁'의 공판기록과 광주학살의 생생한 자료는 도서관에서 관념의 사구를 쫓는 나약한 지식인이 아니라, 분노의 적개심으로 거리를 뛰쳐나가는 동력과 단초를 주었습니다. 이땅의 역사는 목격자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투쟁의 거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당위였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란 바로 반외세 반독재투쟁의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민주주의 자주성과 역동성이 담보된 대중조직화이며, 이를 위해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의식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 반외세 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든 86년 총학생회에 뛰어들었고 그로 인해 '수배'라는 군사정권의 폭압적 사슬을 피해 다녀야만 하였습니다. 물론 1년동안 수업출석을 하지 않아 0.00이라는 학점으로 4학년 2학기 때 제적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7년 1월 수배 해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년 3월 29일 마을 동장으로부터 4월 2일로 입영일자가 명기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즉시 총학에 있을 때 담당하였던 정보과 형사를 찾아 갔습니다. 그는 대뜸, 기동대로 배치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결과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5월 16일 창원의 39사단에서 퇴소하여 서울시경 8중대로 배치되어 미대사관과 경복궁에서 강제 근무당하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7년 4월 2일 - 88년 6월 23일!

이 기간은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사상 유례없는 군사폭력정권에 의한 치욕과 비겁과 굴종을 강요당한 인간성 말살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저는 단지 이땅 분단의 주범 미제와 그 예측적 대리권력인 군사파쇼정권의 굴욕적인 주구에 불과하였습니다. 87년 6월의 거대한 민중항쟁 동안에도 7, 8, 9월의 가히 혁명적인 노동자 생존권 투쟁 동안에도, 그리고 미제와 군사정권의 부정과 조작에 의해 이미 예정된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비겁이라는 전차속에서 침묵만을 지켜왔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한열, 이석규 열사의 두뇌 깊숙히 첩편을 꽃던 친미 파쇼정권의 손놀림을! 대통령선거기간 동안의 기만적 허놀림을! 노동형제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의 몸부림위에 무자비하게 가하던 군화발음!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오월의 젊은 꽃넋으로 낙화하던 조성만, 최덕수, 박래전 열사의 장렬한 죽음을!

그 죽음을 안고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으로 달려가던 애국민주세력의 노도를!

한 실천적 인간의 존재양식은 존재와 운동양식의 통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존재양식을 반영하는 인간의 최대의식인 사상의식은 모순과 대립, 투쟁하는 실천적 존재가 있는 한 쉽게 변질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최근에 사회안전법이라는 군사정권의 반민주적 악법으로 17년 동안 보안처분 감호소에서 짐승처럼 수감되어 있다가 출감한 서준식님의 말에서 처럼, 전향이란 괴멸의 전부인 까닭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비겁과 굴종은 죽음을 강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책은 제가 설 자리를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반외세 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그리고 조국통일운동에로의 전진입니다. 가슴 벅차게 일어나는 해방과 통일에로의 갈구는 더 이상 군사파쇼의 개가 될 수 없는 선언을 주게 되었습니다.

무릇 인간의 투쟁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기 위한 자주성의 투쟁이었으며, 그 자주성이야말로 이 질곡의 땅 한반도 최고, 최대의 휴머니즘임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제개인의 역사적 위상과 당위는 애국민주세력의 공동체적 투쟁속에서만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고, 그때만이 존재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양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때늦은 양심선언을 통해 이 땅에서 산화해간 젊은 꽃넋들에게 깊은 죄책감과 용서를 빌며,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역사앞에 그리고 영전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첫째, 반외세 자주화 투쟁입니다.

해방후 40여년간 이땅을 강점해온 미제는 모든 모순의 근원인 분단의 주범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장애요소이기에 미제에 의해 철저히 억압되고 소외되어 온 모든 애국민주세력과 함께 가열찬 축출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둘째, 반파쇼 민주화 투쟁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친미 파쇼정권들은 매판 독점재벌을 물적 토대로 하여 민중생존권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정권구축을 위해 제반 폭력적 기구와 반민주적 악법으로 구속, 고문등 살인적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반공이데올로기를 통치수

단으로 반동적 파시즘을 구축하여 왔던바, 민중민주주의 거대한 힘으로 그들의 마지막 숨통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 촉진투쟁입니다.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미제와 군사정권의 남한 단독 올림픽을 저지하고 공동올림픽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과 반전, 반핵투쟁, 그리고 민중적 통일논의의 확산을 위해 이몸 던질 것입니다.

넷째, 군사정권의 철저한 사병조직인 전경해체 투쟁입니다.

전경 조직내에 횡행하는 살인적 구타와 기함, 비인간적 굴욕강요등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최루탄 안쏘기, 불신검문 안하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의식화 편지 쓰기, 그리고 외박시 민주단체를 방문하여 상담하기 등의 운동을 제세력과의 연대 속에서 벌여나갈 것입니다.

척박한 농토에서 오늘도 아들의 제대만을 기다리는 주름투성이의 부모님 이름과 피지도 못한 한 송이 꽃으로 산화해간 애국열사의 십자가도 꽃도 없는 묘비에 이 양심선언을 바칩니다.

반외세 자주화 만세! 반파쇼 민주화 만세! 조국통일 만만세!!

통일염원 44년 6월 24일

노재학

5) 대한민국 전투경찰 대원에 고함

임기철

가) 신상

소속부대 : 치안본부소속 기동대

학 력 : 전북대 법학과 1년 휴학

나 이 : 26세

(1차 전경대 이탈로 집행유예 언도받음. 2차 부대이탈로 체포되어 1년 6월의 징역형과 전징역 1년 6월까지 합하여 3년형을 살고있음. 89년 10월경 만기출감)

나) 양심선언문

-이 글은 임기철씨가 홍성교도소에서 「전경해체 투쟁위원회」로 보내는 글이다-

인류의 꽃은 젊음! 피끓는 젊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젊어지고 나갈 사람도 청년이며, 현재의 기성세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비판해야 할 세력도 또한 피끓는 청년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피끓는 젊은 청년이 옥살이 하며 양심에서 우리나라의 터질듯한 젊음의 소리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인 전투경찰대원에게 무릎꿇고 고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전투경찰 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자의 하수인인 전투경찰의 임무를 저의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에 탈영을 하였고, 현재의 실정법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언도받아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형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양심에서 우리나라의 진실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저의 양심 또한 인류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진실된 소리를 외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땅을 굽어볼 수도 없었던 제가 너무도 나약했던 그때의 제 자신을 원망하며 뱃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진실의 소리를 이렇게 외쳐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할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군은 국방을 지키기 위하여 즉, 외부로부터의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꽃인 청년들이 젊음을 버리면서까지 군대생활 3년을 마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투경찰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할것없이 전경을 데모를 막는 것이라 대답합니다. 데모를 막는 것이 국방입니까?

민주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일당 3천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현실에 대한 단체행동의 방법으로, 농민들이 1년동안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농약값, 비료값 보다도 못한 가격조정을 위하여, 거주할 집한칸 제대로 갖지 못한 도시빈민들이 처절한 생존을 부르짖는 한방법으로, 지배세력들의 잘못된 점을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대중동원의 방법으로 부르짖는 표현수단을 용공이라는 명칭으로, 사회혼란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고 짓밟기 위해 탄생한 것이 전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법은 위헌이기에 법으로서 존립근거가

없고 따라서 무효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국시를 통일이라고 말하는 평화통일을 영원히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민족의 의사표시를 탄압하고, 군이 일부 권력층의 하수인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대화에 의한 민족적 통일을 민족의 의사를 수렴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악체제로 인한 인력낭비와 경제손실은 민족경제 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경찰 여러분!

이러한 위헌적인 법을 만든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며, 이런 위법에 의하여 행동하고 있는 대원 여러분이 민중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일이지, 어찌하여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을 주장하는 데모대가 짓밟혀야 합니까?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분서갱위를 일으킨 진시황, 로마를 불태운 네로가 존재했던 세상에서나 강력한 힘을 가진 일개인의 사병이 백주의 대로를 확보하여 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와 같은 악당이 힘에 의한 통치를 정의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민중을 탄압하는 전투경찰이라는 악법도, 이를 제정한 자, 이를 집행하는 자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경대원 여러분께서 젊음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을 귀히 여긴다면, 그리고 역

사의 심판을 두려워 한다면 데모를 막는데 그 힘을 소비하지 마시고 전투 경찰대 설치법 같은 악법을 폐지하는데 선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평등하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젊음을 바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와 같이 일개인의 탈영으로는 전투경찰이라는 탄압도구를, 그리고 체제를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투경찰이시여!

힘을 합쳐 악법을 타도하고 악법에 기생하면서 민중의 피를 빨며 배두드리고 살아가는 늑대를 처단하십시오! 처단하십시오. 꿈에서까지 처단하십시오!!

전투경찰대원 여러분!

제가 이 글로 인하여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진정한 민중의 아들이 되신다면 자유가 박탈된 이곳 감옥에서라도 행복에 겨운 웃음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분단조국 44년 6월 8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25번지
홍성교도소 제336호 임기철 드림

6) 백담사-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을 보호해 주는 태도는 잘못

조규봉

가) 사건개요

89년 1월 30일 NCC 인권위원회에서 전두환, 이순자 즉각 구속, 전경제도 해체, 군의 중립화 쟁취 등의 내용으로 양심선언후 3년 6월.

나) 신상

주소 :
소속 : 강원도경 제2기동대 원주경찰서
계급 : 이경
학력 : 충북대 연초학과 3년 휴학

다) 양심선언문

애국 시민 여러분

5공화국 이후 더욱 증강된 전투경찰들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최루탄과 군화등으로 무참히 짓밟는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전두환, 이순자의 백담사 은둔을 보호해주며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전경들을 대신해 강원도 전경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기에 군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본연의 자세를 저버린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을 보호해주는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도리어 전두환, 이순자의 구속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최루탄과 폭력을 사용하는 노태우 정권의 철저한 꼭두각시 놀음을 중단하고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로써만 하는 민생치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야 경찰의 지금까지의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민중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 현장에서 부모와 같은 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연행하는 모습이 또한 지금의 전투경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독재정권이 집권유지의 수단으로 만들어 낸 전투경찰제도를 해체시킬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경내부의 살인적 구타 행위와 반인간화를 강요하는비민주적 요소 또한 척결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측면과 더불어 저에게 영향력을 준 것은 존경하는 김남주 시인 -이분의 시는 군대생활을 함에 서나 일상생활에서 저에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사면복권과 둘째, 군내부의 자주적 민주개혁을 부르짖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촉구하는 R.O.T.C 장교들의 명예 선언, 셋째,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결성을 통한 운동권의 통합 등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민주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반민중적 폭압기구인 안기부, 보안사, 치

안본부, 대공분실, 전투경찰, 백골단 등의 해체를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경대 설치법의 철폐를 통하여 경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과 정치적 중립화등의 경찰민주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와 더불어 저의 자그마한 몸부림이 민주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변혁운동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나의 주장

1. 백담사에 은둔한 전두환, 이순자를 즉각 구속하라!
 2. 민족민주운동 탄압하는 전투경찰제도 해체하라!
 3. 군부독재 타도하여 군의 중립화 쟁취하자!
1989. 1. 30 강원2기동대 원주 경찰서
이경 조규봉

7) 백담사-아무런 대책없이 동료들을 흑사시키고 있는 그들

임성호

가) 사건개요

89년 2월 18일, NCC 인권위원회에서 전두환, 이순자 즉각 구속, 전경대 설치법 준수, 군경의 정치적 중립화의 내용으로 양심 선언후 4년여제 수배생활중.

나) 신상

주소 :
소속 : 강원도경 제307전경대(태백경찰서)
계급 : 일경
생년월일 : 1967년 6월 28일
학력 : 원광대학교 체육학과 3년 휴학

다) 양심선언문

동서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한반도는 두동강이 난채 민족상잔의 비극이 우리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열망인 통일을 현정권은 묵살하면서 영구히 분단을 고착화 시키려는 그들의 음모를 전투경찰로서 규탄하면서 감히 국민앞에 선언합니다.

6공화국 출범이후 민주화를 부르짖는 국민적 봉기를 그들은 외면한 채 아직도 5공과의 밀접

한 관계속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비민주적 작태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폭로하고자 합니다. 5공과의 단절을 외치는 국민을 기만한 채 노정권은 전두환, 이순자를 백담사에서 비호하며 종전의 국민적 사과를 커녕 내설악의 정경에 심취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그들은 군의 의무라는 굴레를 이용하여 엄동설한에 아무런 대책없이 저희 동료를 흑사시킴을 국민앞에 마땅히 고발

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순수한 동기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전경대의 설치목적인 대간첩 작전수행에 주력해야하는 본연의 임무를 무시한 개인적 경호와 특히 5공비리의 주역을 보호하는 경찰 악법에 과감히 군의 민주화와 전투경찰의 제도적 모순이 타파를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한 전두환, 이순자를 즉각 구속하라.
2. 전경대 설치법 준수하고, 민족민주운동 탄압하는 배골단을 해체하라!
3. 군부독재 타도하여 군, 경의 중립화와 민주적 요소를 쟁취하자!

1989년 2월 18일
일경 임 성 호

8) 더이상 방패를 들 수 없어었어요

유진태

가) 사건개요

89년 4월 3일 전민련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그후 수원 구치소 수감중, 89년 7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석방.

나) 신상

주소 :

소속 : 경기도경 기동2중대 3소대

계급 : 일경

아! 나는 더 이상 방패를 잡을 수 없었다. 지난 3개월 간에 계속 되어져온 울산 노동형제들의 지난한 투쟁들을 기억하며 이 며칠간 내 몸에 와서 부딪혔던 울산, 현대 노동자들의 모습들은 결코 일신 기업체내의 단순한 문제점에만 연유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독점재벌과 그들의 이익옹호를 위해 자신들의 기존의 위치를 확고히 하자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함을 알 것입니다.

1990년 3월 30일. 울산 현대 중공업 현장에서 나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지독한 최루탄 가스속에 밀려가던 현대중공업 노동자, 일방적 선제공격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에 건물속으로 밀려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린치, 폭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방패를 들고 있던 내 앞에 펼쳐지던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울부짖던 어느 부인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나는 나를 바라보는 울산시민들의 그 차갑고 냉랭한 시선들 앞에서 감히 방패를 바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방독면을 쓴 내눈에도 눈물이 고이고

내 다리에는 힘이 빠져 나가면서 국민의 분노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는 저들에 대한 물밀듯한 분노가,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맡겨야할 군을 전경이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사병집단으로 전락시킨자들에 대한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분노가 어느덧 복종으로 길들어져가던 내 가슴을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화순 매향리의 미군사격정에도 미군들 스스로가 사람이 살수 없다고 축정해 놓은 그 땅에서 살아야 했던 농민형제들도, 울산의 노동형

제들도 또한 방패를 손에 쥔 전경들도 모두 모두 피해자요, 이 땅의 아픔을 강요당하는 한 핏줄 한겨레임을 말합니다.

이제 저의 결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다짐하건데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복종은 바로, 더 이상의 타협은 영원하는가 패배임을 자각하며 이제는 입속에서 우물거리는 속삭임들이 아니라 내 땅! 이 거친, 그러나 자유의 이 땅에 자유와 평화, 참 평등이 찬란히 빛을 쏟아내는 그 날을 위해 내게 맡겨진 이 생의 책임감을 다 하렵니다!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퇴진하라!

9) 동의대 참사—그대들의 꽃다운 청춘은 노예적인 삶 바로 그것이었습시다.

황원진 의

가) 사건개요

89년 5월 8일 서울시경 소속 백골단 6명이 평민당에서 동의대 참사 진상규명, 공안합수부해체 등의 내용으로 양심선언후 농성돌입.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제대, 3명은 자대 징계회부.

나) 신상

소속 : 서울시경 제3기동대 97중대, 사복체포조 : 일명 백골단

*황원진

주소 : 서울

계급 : 수경

약력 : 건국대 독문학 휴학(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제대)

*이상철

주소 : 경기도 용인

계급 : 수경

약력 : 인천교대 휴학(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제대)

*정균한

주소 :

계급 : 상경

약력 : 서울농대 휴학(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제대)

***유성호**

계급 : 상경

약력 : (자대징계 15일 후 복무만기 전역)

***손동권**

계급 : 상경

약력 : (자대징계후 복무중)

***강동주**

계급 : 상경

약력 : (자대징계후 복무중)

다) 양심선언문

먼저 여섯분에 대한 추모의 묵념을 올립니다.
다.

(묵념) 그대는 아까운 꽃다운 청춘을 누구위해 불살랐습니까?

나라와 민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였습니까?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였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틀다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바로 5공 정치 경찰 수뇌에 대한 무의식적 충성과 복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경동지들은 경직되고 비민주적인 조직들속에서의 한 개인존재는 건전한 비판의식은 상실한 노예일수 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그대들의 꽃다운 청춘은 노예적인 삶 그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대들을 노예로 만든이도, 그 죽음의 불구덩이로 밀어넣은 자도 분명히 지금 두눈 뜨고 멍멍거리고 있건만 오히려 그대들의 적일래야 적일수 없는 그대들 형제들이 그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방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동은 고인들의 죽음의 진상규

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렇듯 병영을 뛰쳐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들! 지켜봐 주십시오. 그대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복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묵념바로)

저희들 일동은 서울시경 제3기동대 97중대, 사복진압중대 대원들입니다.

무모한 과잉진압의 결과였던 동의대 사건으로 참변을 당하신 분들의 죽음에 너무나 억울했고, 그 죽음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다가왔으며, 그 죽음의 의미를 왜곡하고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정치권력자들을 폭로, 응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위험을 무릎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바, 동의대 참사의 배경과 의미는이렇다고 봅니다.

즉 5공화정권인 노태우 정권이 5공 청산의 확실한 마감과 광주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제반 민주적 개혁조치들을 말로만 떠벌렸을뿐 실제로 이루어 놓은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중의 거센 반발을 받아 위기에 내몰린 노정권은 중간평가의 사실상의 취소 결정으로 전면적 탄압의 제 본질을 드러내고 있었습

다. 급기야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빌미로하여 대대적인 탄압을 민족 민주운동 세력들에게 가해왔습니다. 문익환 목사 즉각 구속, 고은 이재오 씨 구속 그리고 한겨레 신문 논설고문이신 이영희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구속시킨대에서 그 탄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후 있어왔던 "4월 3일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동자 대회"의 원천봉쇄, 시위대에 급기야 총기를 들이대 살기를 뻔했든데서 동의대 참사의 배경을 알수 있었습니다.

문목사 방북을 빌미로 민족민주세력에게 가해진 탄압을 일반 국민에게 정당화 하려고 이번 동의대 사태를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동의대 참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면적 탄압과 그 대응의 역관계속에서 탄압의 명분을 상실해가고 있던 노정권의 새로운 미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농성가담자 76명 전격 구속, 화염병 처벌, 규제법 국회상정, 파괴 방지법의 야 3당의 과의합의 또는 분열공작으로써 국회통과 방침결정등은 더욱더 강도 높아진 그들의 탄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민족 민주운동세력에게 회복하기 힘든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으로써 현재의 정치정세 분석적 내용은 접어두고, 우리행동의 본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춤을 추고 있는 시위현장에서 이름없이, 다치고, 죽고, 고생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이 죽음은 열사가 되어 추앙받고, 전경이 죽으면 똥개 취급이나"는 말은 자못 우리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바로 이 문제는 현재의 경찰 조직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체계라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경찰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 경호담당, 보안

담당, 교통담당들이 제 손안을 벗어나 엉뚱한 권력 기구에 의해 행사되고 있고 현재의 주요 임무가(시국) 치안담당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경찰이 그 고유권한을 가지고 진정으로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행할때야지만 신뢰받는 경찰, 민주경찰 국민의 경찰로 일어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5공 시절의 정치권력형 경찰 간부들의 전격적인 교체와 경찰 공무원 처우개선, 민주적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각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용산 마피아로 대표되는 5공 비리형 경찰 수뇌 인사비리, 사단의 핵심인물-김우현 신임 치안본부장-기용등은 아직도 여전히 경찰 수뇌의 정치권력총화의 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대 참사 이후 경찰내부의 비판의 목소리에 대응하여 처우 개선을 한답시고 월급 몇 푼 올리고, 수당 몇푼 더 없어준다 합니다!

여섯분의 아까운 죽음의 가치가 고작 월급 몇푼의 인상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경찰형제의 생명과 생존권을 휴지조각으로 밖에 보지않는 권력자들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경찰형제들의 민주적 권리, 행사와 헌법에 보장된 각종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적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동의대 참사 책임지고 부산시경국장, 관할 경찰 서장 물러가라.
2. 구조적, 고질적 과잉 폭력진압의 책임을 질것을 노정권은 진국민앞에 약속하라.
3. 형제의 죽음을 발판으로 경찰 민주화, 독립화 쟁취하자
4. 5공 정치권력형 경찰간부 전원 척결하라
5. 경찰 고유권한들을 원상 복구하라.
6. 경찰 민주화 입법 추진법국민회의의 조속

한 구성을 범국민적 세력과 기존정치권에 제한한다.

- 7. 경찰 형제들의 처우개선을 대폭 보장하라.
- 8. 민주적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각종의 자유

를 완전보장하라.

1989년 5월 8일

***수경 이상철, 동 유성호, 상경 정균한, 동 손동권, 동 강동주, 수경 황원진

10) 죽음보다 싫었던 시위진압

정월모

가) 사건개요

90년 3월 13일 서충련 사무실에서 전투경찰 시위진압 동원반대 및 3당야합 민자당 해체, 양심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며 양심선언.

나) 신상

주소 : 홍성군 장곡면

소속 : 전남 611전경부대 소속

계급 : 상경

학력 : 87년 외국어대 독어과 입학, 88년 9월 군 입대.

다) 양심선언문

87년 대학에 입학한 후 잘못된 시국의 흐름에 아픔을 느끼며 한때는 민주화 시위에 동참도 하고 학생본연의 임무인 학구탐구에도 열중한 평범한 대학생생활을 2년간하며 좀 더 변모된 모습, 새로운 마음으로 훗날 대학생생활을 위해 88년 9월 29일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변화의 길', '남자의 길'로 생각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튼튼한 몸과 마음도 수양하고 남아의 기상, 호연지기의 뜻을 품고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치않던 전경생활로 갈등과 방황의 정신적 고통으로 감당 못할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민정당사 검찰청의 철야근무를 서며 생활했습니다. 저는 이 생활 속에서 조금도 보람이나 기쁨을 느낄 수 없었으며, 광주시

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막는 독재정권의 방패노릇을 하는 나의 위치를 생각하니 괴로웠고 일을 계속하는 것은 죽음보다 싫었습니다. 이같은 갈등 방향 속에서 대원들의 모습은 저로 하여금 더욱 큰 회의를 갖게하였습니다.

자주있는 구타행위로 서로를 물고 뜯는 등, 정이 상실되고 인간성마저 상실되는 부대생활로 소대원 중 몇몇의 대원이 탈영경험을 해야만 했고 한 대원은 전경생활에 적응을 못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구타금지를 떠들면서도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정권과 권력의 시녀노릇을 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여 수차례 시정요구도 하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상급 지휘관들은 냉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군생활을 더욱 회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우기 광주학살과 5공비리의 원흉인 노태우가 간신모리배 김영삼과 유신본당 김종필과 야합하여 민자당을 창당하였을 때는 저로서는 더욱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민자당 창당은 분명한 국민 배신 행위이며 온 국민이 이에 반대하여 항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당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죽기보다 싫었고 저도 이땅의 젊은이로서 민주화의 대열에서 의연하게 투쟁하고 떳떳하게 살고자 지난 3월 8일 오후2시에 부대에서 탈영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본의 아니게 전경이 되어 이루 말 못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하지만 비양심적이고 떳떳하지 못한 전경 생활을 청산하여야만 할 정당성에 이처럼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노태우 정권은 전투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10만 전경은 민주화운동과 민중의 생존권 탄압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노태우는 퇴진하라!

*3당야합으로 일당 독재 획책하는 민자당은 해체하라!

*노태우 정권은 불법적으로 궁금중인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모든 전경들이 반민중적이고 반통일적인 노태우 정권의 방패 노릇을 청산할 수 있고 반민주 야합인 민자당이 해체되는 그 날까지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1990. 3. 13

전경 정월모

11)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따라 평생을 도망자로

이우형

가) 양심선언문

먼저 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진정 어려운 상황속에서 침체된 민중투쟁의 전선을 활짝 열어 재건 어렵고도 어려운 장거를 이룩하신 윤석양 동지와 양심선언을 하시고 좁혀오는 수배망속에서도 의연히 노태우 정권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선배 동지들, 그리고 지금 이시간 발디딘 현실에서 굳건히 투쟁에 떨쳐나선 민중형제들에게 뜨거운 동재애와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한없이 약해지려는 투쟁의 의지를 다잡아 갈 수 있었으며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것을 민중의 승리를 위한 영예로운 삶에 바치고자 하는 결의를 새로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저는 서울 북아현동 소재의 추계예술대 문예 창작과 86학번(89년 9월 3일 재적)이며 90년 4월 17일부로 입대, 전투경찰로 근무하다가 양심선언을 결심, 탈영한 서울 제3기동대 7중대 소속 이병

이우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양심선언을 결심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집안의 막내로서 부모님의 사랑과, 응석을 부리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라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또 저는 학창시절 고통받는 민중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좀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소박하지만 이 시대에 있어선 결코 합법적이지만은 않은 나름의 꿈을 키워온 한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에 따라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할 지도 모르는 어찌면 평생 형벌이상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데도 모를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수천만 민중형제의 행복한 미래, 민중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제 자신 민중의 아들로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후로서 특별한 두려움이나 후회와 같은 것은 없지만 저는 왜 제가 왜 탈영하게 되었는지, 또 왜 양심선언을 하려는지를 민중형제 앞에서 밝히고 노태우 정권에 대항한 오늘의 투쟁에서 투쟁의 불길을 당기는 적은 기쁨과 같은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중형제 여러분은 전투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대전에는 걸을 스쳐지나가기만해도 등골이 오싹한 정치 깡패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형제 여러분의 생각역시 저와 다를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전경생활도 그리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입대 동기중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 하시는 백골단에 차출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백골단 동기들과 간간히 마주쳐서 이야기 해보면 모두 그럴 수 없이 마음이 어리고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면회오는 동기들의 가족을 보아도 내 어머니가 평범하듯이 그 사람의 어머니도 깡패같은 백골단 자식을 낳을 사람으

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니다. 그저 내 어머니와 같이 포근하고 인자한 모습인데 그 자식들은 진압복만 입으면 사천만 민중이 이를가는 흉칙한 악마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진압과정에서 보면 제가 소대에서 제일 사랑하던 고참이 SY-44총구를 시위대의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 인정사정 볼것 없다는 중대장의 지시 한마디에 우리 모두가 흉칙한 흥기로 변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토록 어리고 착하고 순박하기만 한 우리들을 민중의 적으로 만드느냐 악마의 자식이 되도록 하는가 누가 무엇때문에

저는 우리들을 이 씻을 수 없는 죄악에 손담그게한 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제가 탈영을 결심하고 부대를 나온 이후에도 많이 했습니다. 부대를 나온 이후 저는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베개 삼아 잠을 많이 잤습니다. 또 라면 한그릇 사먹을 돈이 없어서 몇날을 굶기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가, 망각하기도 하고 그냥 모든것을 포기해 버리자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누구 때문이냐고 스스로에게 질문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바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 천사의 날개를 달아줄것 처럼 노래부르다가 30개월을 볼모로 우리를 악마의 구덩이로 끌어 넣은 노태우정권과 한줌도 못되는 지배의 무리에 대한 증오와 투쟁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전경과 민중 여러분은 적과 적으로 갈갈이 찢겨진 이 참혹한 반도 남단의 현실을 결정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다 열심히 돌과 화명병을 던져주어야 하며 전경들도 계속되는 양심선언으로, 전경내의 투쟁으로 함께 해야함을 호소하며 민중형제들과 7만 전경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연한 기회에 수미다 노동형제들의 투쟁수

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파업투쟁에 지쳐버린 형제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노래를 부를때 끝내 같이 울어버렸다는 어느 전경, 그가 바로 7만 전경동지들의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첫 진압임무가 이런 일을 강제 진압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치떨리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정신이상인 되어서 분신한 최동열사의 마지막길을 가로막고 오열에 찬 어머니의 "폭력경찰 물러가라"라는 말을 온몸으로 뒤집에 썼을때 고참 몰래 흘렸던 그 눈물이 저를 투쟁에 길로 나서게 했습니다. 그 차디찬 파쇼의 감방에서도 단식농성으로 당당히 투쟁의 전선에 합류하셨다는 애국전경 양승균 동지와 함께, 그리고 윤석양 동지와 함께, 노태우정권은 반드시 우리 4천만 민중의 손에 의해서 타도되어야 합니다.

7만 전경과 60만 국군 장병도 드디어 노태우정권과의 결전의 길을 펼쳐일어섰음을 만방에 선포하여야 합니다. 노태우정권이 끝장나지 않는 한 보안사, 안기부, 치본의 정치공작과 대

민사찰은 끝나지 않습니다. 운동지의 폭로로 이제 우리 7만 전경들과 60만 장병들도 노태우정권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제2의 제3의 윤석양 양심선언투쟁으로 자랑스런 민중투쟁의 대열로 화답해야 합니다.

1. 파쇼의 폭압기구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대공분실과 전투경찰대, 백골단을 해체하라. 아울러 군경양심수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윤이병등의 수배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2. 7만 전경들은 노정권을 위한 방패가 되어 민중탄압에 동원되기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진압명령에 대한 거부, 제2 제3의 양심선언투쟁으로 노태우정권타도투쟁에 펼쳐일어나라.

3. 비상시국회의를 투쟁의 구심으로 삼아 4천만 민중은 노정권의 타도를 위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자.

1990년 10월 15일

노태우정권의 방채이기를 거부하는
서울 제3기동대 7중대 이경 이우형

12) 고 강경대군의 어이없는 죽음—그를 누가 죽인걸까요?

박석진

가) 신상

본적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 4가 32-160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신전동 26-3 제성 3차 APT 가-401

주민등록번호 : 690822-1056424

소속 : 서울 경찰 제1기동대 1중대

계급 : 일경 (762기)

가족관계 : 2남 1녀중 막내

나) 학력 및 상황

건국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0학번

86년 검정고시 합격

90년 건국대 정의과 입학

90년 6월 14일 37사단 입대

7월 28일 퇴소

8월 28일 경찰학교 퇴소 서울경찰 1기동대 1중대 배치 첫시위진압 : 90년 8월 1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징용희생자 배상" 을 요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등의 시위 진압에 동원

양심선언 결심 : 91년 4월 19일 4.19혁명 계승 시청집회때, 종각에서 파고다까지의 시위진압을 하면서 양심선언을 결심

91년 5월 4일 13시경 시청앞 근무지에서 탈영

91년 5월4일 17시 백골단 해체의 날, 범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장에서 양심선언

다) 양심선언 기자회견문

저는 군에 오기 전까지만해도 한명의 평범한 대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권도 아니었고 단지, 내 주위가 어떤 모습인가를 인식하려고 노력했던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6월 입대를 하고 두달만에 전경이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자주 보아왔고 근거도 없이 적대감을 가져왔던 전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경 직할 제1기동대 본대의 대원으로서 많은 진압에 참가하면서 한 때는 대학생이었고 현재는 전경이라는 이중성으로 많이도 괴로왔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학생들을 미워할수도 없었고 더우기 학생을 욕하는 고참과 내 졸병들도 전 욕할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젊은이이고 함께 고생하는 동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함께 술마시고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아파했던 젊은이들 이었는데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따위로 우리 젊은이들을 완전히 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얼마전 강경대 군의 어이없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를누가 죽인 것일까요. 단지 전경만이 처벌되어야 할까요? 누가 그들을 백골단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폭력과 압박이 아니고는 지탱되지 못하는 이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아닐까요.

더이상의 학생과 전경의 죽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더이상의 방독면 속에서 우는 전경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까지 같이 진압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고 고생했던 전경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이 우리의 적일까요? 정말 학생들이 던지는 화염병과 돌 때문에 우리가 다치고 고생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돌과 화염병을 막아야 합니까? 우리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왔습니다. 더이상 국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우린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싸울순 없습니다.

이 땅의 울바름을 위해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다치고 또 죽어 갔습니다.

얼마 전에 강경대 군이 죽었고 또, 분신으로 얼마전까지 친구였던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인 전경이 구속되어 자신의 인생에서 일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분노했지 않습니까? 전경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맞습니다. 우린 죄가 없습니다. 우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구속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전경으로서 동료들에게 촉구합니다.

1. 시위 진압시 노동자, 학생, 시민들을 구타하지 맙시다.
2. 부대 내에서 하급자들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지 맙시다.
3. 제2, 제3의 양심선언으로 전경들의 양심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4. 학생과 전경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정권은 물러가라!

1991년 5월 4일

더 이상 독재정권의 방패이기를 거부하는 박석진 일경

라) 전소대원들께 이 글을 드립니다.

먼저 제 행동으로 인해서 소대는 물론 중대 전체가 많이 경직되어 모두의 생활이 힘들어졌으리라는 생각에 죄송함이 앞섭니다.

거의 9개월간을 같이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일도 참 많았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던 1중대에서의 생활이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저의 의지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조직이어서 열심을 낼수는 없는 생활이었지만은 전 진심으로 여러분을 좋아했습니다.

중대 체질이라고 하는 김용철 상경님도 전 좋아했구요. 남자답지만 여자를 많이 밝히시는 김상혁 상경님도 전 좋아했습니다. 또 잘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따가리를 해 드렸던 김영대 상경님을 전 또 잊을수 없습니다.

챙기는 기수라는 80기 선배님들, 최호광 상경님 우영주상경님 그리고 서기덕 상경님도 전 좋아했습니다.

사람좋은 95기 선배님들, 빵구 많이내는 저

희 졸병들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도 받으셨던 강해수 상경님, 이중모 상경님 오충권 상경님, 신상순 상경님도 저에겐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저랑 제일 친했던 박성호 상경님, 그리고 육해성 상경님도 전 오래도록 기억할 겁니다.

유독 저에게 잘해주셨던 715기 선배님, 남기준 상경님. 김재완 상경님에게도 전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이가 나빠져 버렸지만 한때는 정말 친했던 성원중 상경님도 전 잊을수 없구요. 착하다 착한 김대현 상경님, 운동 잘하는 전영도 상경님, 부지런한 김상유 상경님. 확실한 애인을 확보하고 있는 정성영 상경님. 돌도 없는 차기수 최세경 상경님도 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 모두가, 정말 한명 한명이 저에겐 돌도없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착한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보았습니다. 부정의한 부도덕한 상황이 얼마나 사람을 황폐화시키며 얼마나 우릴 무감각하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학생들이 던지는 돌과 화염병을 맞으며 다쳐야 하는지. 아니 그전에 왜 학생들이 돌과 화염병을 던져야 하는지를 우린 한번 짚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중대장과 이 정부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학생들만의 탓일까요? 학생들이 좌경용공세력에 쇠뇌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젊은이들입니다. 외박때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면 같이 노래 부르고 술마시고 즐거워하는 나와 우리와 똑같은 젊은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편으로 갈리어서 싸워야 할까요?

왜 학생과 전경이 죽어야만 할까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다쳐야만 할까요?

얼마전 강경대군이 죽었을때, 다섯명의 전경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죄가 있습니까? 그저 중대장이 시키는대로 쫓아가라면 쫓아가고, 잡으라면 잡은 죄밖에 없습니다.

왜 화내지 않습니까? 왜 분노하지 못합니까?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4기동대 94중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우리를 동정할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고 우릴 봐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디찬 수감일뿐이며, 온 국민의 증오일 뿐입니다.

전 더이상 이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올바르지 못한 이 시대의 동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학생들을 우린 접하고 있습

니다.

그들이 소위말하는 운동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젊은친구들입니다. 우린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우린 함께 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생명인데...

전 제 행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대원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이 사회가 올바르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을때, 우리 함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으리라고 전 믿습니다.

부디 다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991. 5. 5. 새벽

박 석 진 올림

13) 고 강경대 군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를 살인자로 만드는 시대

이종수

가) 신상

이름 : 이종수 일경

생년월일 : 70년 1월 3일

주소 : 부산시 동구 수정4동

약력 : 88년 동국대 사학과 입학

90년 휴학

90년 6월 26일 군 입대

8월 11일 전경으로 차출

91년 5월 12일 양심선언 결정.

5월13일 범국민대책회의에서 양심선언

나) 양심 선언문

저는 서울 제2기동대 63중대(602전경대) 3소대 일경 이종수입니다. 1990년 6월 26일 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서울 제3기동대

7중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2월 18일 7중대가 의경 기동대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저는 63중대로 전출되어 지금까지 시위진압

에 불법적으로 동원되어져 왔습니다.

저는 원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재정권의 방패막이가 되어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적으로 짓밟아야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이러한 시위진압은 항상 저를 괴롭혔고 더우기 이번 강경대군의 죽음을 보면서저도 언젠가는 지금 구속된 백골단들 처럼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현재의 독재정권이 있는한 언제고 전경과 학생들의 희생이 있을 것이기에 이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제가 양심선언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먼저,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시경국장등을 이번 강경대군 폭행살인사건의 살인교사죄로 고발합니다.

원래 전경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수행'이고 따라서 전경의 시위진압 동원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를 현 내무부 장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경들을 살인자로 만들게 한 불법적인 시위진압을 명령한 자들이 당연히 먼저 구속 처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전경대 설치법 2조3항에 근거하여 내무부장관등을 살인교사자의 혐의로 국민 앞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명령에 죽고 살수밖에 없는 애매한 전경들만 구속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 조작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태우 정권의 교활한 정치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전경의 불법적인 시위진압동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들에게는 법도 필요없단 말입니까? 분명히 불법임을 시인했으며 불법행위를 한사람은 법적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고 그 불법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만 하는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경의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임무라고 할 때

전경을 시위진압에 내모는 것은 내 부모형제들을 간첩으로 상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전투경찰 이라는 허울속에 군 병력을 사회속에 상주시켜 독재정권의 폭압적 통치 수단으로써 삼고있는 것은 준계엄과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경의 불법적 시위진압 동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전경은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대로 되돌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여 전투라든지, 진압이라는 군사용어는 이제 사리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당하게 전경으로 강제 차출되어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진압명령을 사주받고 있는 현실에서 저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나의 양심선언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양심선언은 저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7만 전, 의경, 백골단 형제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애국 전, 의경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 친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이제는 저들의 노예임을 거부하고 우리의 짓밟힌 인권과 양심을 되찾아 민주화운동에 떳떳한 주인으로서 동참 합시다.

강경대군 살인사건의 살인교사자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서울시경국장등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전경의 불법적인 시위진압동원을 즉각 중단하라!

독재정권의 방패막이 전, 의경, 백골단을 즉각 해체하라!

양심선언 정당하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시위진압명령을 전, 의경은 집단적으로 거부하자!

전경, 학생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태우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1991년 5월 13일
이종수

14) 고 강경대군의 죽음을보면서— 전경의 정훈지는 현정권의 정책홍보지

최창윤

가) 신상

이름: 최창윤 수경

주소: 경북 대구

약력: 영남대 불문학과 87학번.

89년 10월 군입대, 91년 6월 7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양심선언

나) 기자 회견문

먼저 오늘 이 곳 제주에서 양심선언을 하게 된 제 소개와 경위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89년 10월 19일 군에 입대하여 전경으로 차출, 제주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 경찰서 소속 전경대원으로 근무하던 저는 고 강경대 열사 폭행치사사건과 이따른 분신소식을 접해 들으며 슬픔과 분노를 느끼던중 경찰국 상급자로부터 원치않는 전경 정훈지 편집을 지시받아 이에 불응할 것을 결심. 91년 6월 6일 경찰국 공보계 발령을 계기로 이 곳 제주대 총학생회에 5월 6일 11시 40분에 도착 하루를 지낸후 오늘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68년 12월 12일 대구에서 출생하여 입대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서무과장님으로 재직하고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보살핌속에서 유복하게 자라난 저는 2남1녀중에 막내로 집안가족들의 귀여움을 다 받아왔습니다. 너무 평범한 정도로 큰 말썽 한 번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7년 영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진학한후 저는 학내 문학씨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현사회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획득하면서, 문학을 지망하는 지성인이 어떤 글을 써야만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며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87년 6월을 맞아 직접 민주화의 대열 속으로 뛰어들어 6월 시민항쟁을 경험하게 되었고 7,8, 9월노동자 대투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89년 2월 군입대를 결심하고 휴학후 그해 10월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훈련소 과정을 마치고 전경으로 차출된 저는 제주도로 근무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경찰서 소속 전경대원으로 근무하던 저는 원치 않은 전경의 신분으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런 경험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으로 계속 복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정권의 무차별적인 학생, 노동운동 탄압과 이어지는 고 강경대군의 폭행치사 사건과 전남대 박승희 양의 분신, 그리고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고 박창수씨의 의문사에 이르러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애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울부짖는 가족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벽에 구멍까지 뚫어 시신을 탈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보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패륜이자 만행인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시신을 탈취 강제부검을 실시한 후에도 몇 일이 지나도록 검찰측에서 말 한마디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 현검찰이 반민주적이며 비도덕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독점자본과 결탁한 현 정권이 그들 세력의 하수인인 검찰과 안기부를 조종하여 누가 보아도 음모에 찬 타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조작 전 노동운동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는 음모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한 저는 도저히 개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보아도 진정한 전경들의 정신적 고통과 견해들을 담아내기는 커녕 현정권의 정책 홍보지에 지나지 않을 그런 정훈지를 만들라는 것은 저에게 민중에 대한 배신을 선언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명령에 움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만이 통하는 데라지만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사상적 견해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인 것입니다. 하물며 TV에 나오는 신발 선전 문구에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판에 엄연히 현실을 온몸으로 감당해내고 있는 전경대원들에게 사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이는

현정권의 말 뿐인 민주화의 실상을 낱알이 드러내 주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전경대원이기 전에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고 분노하는 젊은이로서 더이상 현실을 방관할 수 없어 양심을 택했고 그리하여 저는 91년 6월 6일 경찰국 공보계 발령을 받는 과정에 이곳 제주대에 와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단순하게 부당한 발령에 항의하여 이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하여 온 것입니다. 고 강경대군을 죽음으로 몰아간 공안정치가 또다시 고 김귀정양을 죽이는 현공안정국으로 이어지는 현실 앞에서 저는 이 사회의 양심인으로서 현정권을 반대하며

그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결의합니다.

*고 강경대, 김귀정 열사를 죽인 백골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고 박창수 열사의 살인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현 노동 학생운동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노동운동의 탄압 주범인 안기부를 즉각 해체하라.

*공안통치 종식과 현정권의 즉각 퇴진.

*군인, 전경 사상표현의 자유보장.

1991년 6월 7일

제주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수경 최창윤

15) 전경은 정권 안보의 희생양

강태중

가) 신상

소속 : 전북 경찰청 제 2308전경대 1소대 (한국의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89)

계급 : 일경

이름 : 강태중

1992년 1월 15일 KNCC 인권위원회에서 양심선언

나) 양심 선언문

전라북도 경찰청 예하 제2308 전경대소속 일경 강태중은 전경대해체와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전경대는 대간첩사건을 목적으로 창설된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켜 군대에 온 젊은이들을 시위진압에 내몰아 정권안보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5월 강경대 열사의 죽음앞에서 전경대의 시위진압동원이 불법임을 자인하고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전경병력을 점차줄여 없앨것을 약속했던 그들은 그럼에도 그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전경을 시위진압에 동원, 그들이 만든 법조차 지킬줄 모르는 비양심적 정권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2. 또한 91년 506 전경대의 지성룡일경 실종 사건과 제가 소속된 전경대의 길왕식씨 구타치

사 사건에서 보여주듯 전경대내 구타와 기합이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히 자행될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헌적인 시위진압에 전경들이 내몰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제 고향이기도한 정읍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고향어른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싸움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국군 방위의 의무를 지키려 군입대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최루탄과 곤봉으로 막으면서 2만여 전경들은 고통에 아파해야 합니다. 저는 당당히 전경대의 해체없이 2만여 전경들의 아픔은 계속될 것이고 또한 민주적 정부란 존재할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 1. 15

일경 강태중

5. 기타 자료 모음

1) 임택준 중령의 양심선언 - 인권의 무법자들을 고발한다.

88년 7월 7일, 육군본부 정책기획실에 근무중이던 임택준 중령은 근무지를 이탈한 뒤 청와대 이병기 비서관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군내에서 '임중령 양심선언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한다.

「인권무법지대의 인권의 무법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대통령 청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 역사의 한부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어 대통령께 고발합니다. 40년이란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군대에 아직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이런 현실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사실들이 외부로 노출될까 두려워 오히려 은폐·조작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군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역사의 독버섯이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되고 말 것입니다.

임 중령은 76년 육사를 졸업한 후 미국 스티븐스 공과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었다. 그는 미사일 부대소대장으로 임관해, 전방부대 포대장, 한미야전사령부 기획장교 등을 역임했다. 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육사출신 엘리트 장교가 왜 항명을 하고, 결국은 군복을 벗게 된 것일까.

대통령에게 보낸 31개항의 고발문

임중령의 청원서는 31개항의 고발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몇장의 청원서로 인해 육

군본부가 발각 뒤집혔다고 한다. 그리고 군은 아직도 청원서의 공개를 극력 저지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의 고발은 오늘날 현재의 군대 위상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31개항의 고발문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발1(진급) : 어느 특정지역 출신이 88년도 장군진급자의 42.4%를 차지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발4(진급) : 동기생 중에 선두그룹을 형성하는 고급장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현상이 정상입니까?

힘있는 장군의 보좌관, 비서실장, 부관, 본부 대장, 보안사·특전사·수방사 출신들. 힘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장교들. 상관의 비위를 잘 맞추고 부하의 인권 및 인력을 많이 착취하는 장교들.

고발7(인권) : 부하를 악랄하게 고문하던 장교가 장군이 되었다면 그 장교는 부하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고발9(인권) : 군에 간 자식이 죽어서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더욱이 구타사고로 그가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발 10(인권) : 우리 군대(육군)에 자살사
고가 많은데, 사병들이 군생활이 얼마나 괴로
왔으면 인생을 포기했겠습니까?

고발18(휴가) : '토·일요일 포함해서 휴가
5일' 부하들에게 휴가 주기가 아까워 10일 휴가
를 5일로 줄이고 그것도 토·일요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친의 회갑 때도 단 하루의 휴가를
주지 않던 그들이 대통령 선거 때는 계획에도
없던 휴가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발19(인력관리) : 국방정책 전문가를 육성
하기 위해 해외 박사과정 위탁교육을 4년동안
시킨 장교를 귀국한 지 채 1년도 못되어 전역시
킨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고발22(복지) :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휴게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도, 옷
과 신발을 보관하는 장소도 화장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
니까?

고발24(의료) : 국군통합병원이 포로 수용소
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들은 어떤
병원을 이용하겠습니까?

고발30(직업군인들의 현실) : 일부 몰지각한
군인들 때문에 우리 직업군인들이 매도되어서
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국방에 전념하고 있는 직업
군인들, 특히 하사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
는지 아십니까?

고발31(애국의 의미) : 상관의 명령이나 지
시에 무조건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장군과, 군
의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는 장교, 이들 중 누가
애국가입니까? "군의 민주화는 없다"라고 강조
하는 장군과 군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장교·누가 국가와 군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
니까?

군의 잘못된 실상에 대해서 군 자체도 해결
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금도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젊은 장교의 눈에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의 주요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실상들을 고
치려 노력하지는 않은 채 이 사실들이 외부에
누설될까 통제하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장군의 욕설 한마디가 구타사고를 불러일으
키며, 폭언 한마디가 자살사고를 불러일으키
고, 비합리적인 부대관리가 총기사고를 불러일
으키고 우리 군의 역사를 좀먹는 것입니다. 군
의 사병화 현상이 독재를 탄생시킨다고 할 때
대한민국의 장래는 실로 암담할 뿐입니다. 만
일 이러한 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제2의
히틀러가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
까?

군인이란 직업은 적탄이 쏟아지는 상황하에
부하들의 죽을 줄 알면서도 "돌격 앞으로!"라
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직업임을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군의 잘못된 실상에 대해서도 군 자
체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 젊은 장교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
고 있습니다. 진실로 대통령의 보다 많은 관심
이 필요합니다.

1988. 7. 6

육군중령 임택준

임씨는 이 31개항의 고발사항에 대해 한 월
간지 논픽션에 기고해 본선까지 오른 글에서
그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청원서 작성사건'에 대해 임씨는 이
처럼 털어놓았다.

"군의 민주화와 군의 인간화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몸의 희생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생
각하며 의지를 모아 청원서를 작성하게 됐습니
다.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경직된 사회분
위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 닥쳐올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군인의 인권

1953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임택준씨는 가
난한 농촌살림에 대학진학이 어려운데다 육사
제복에의 매력 등이 한데 작용, 육사진학의 꿈
을 키웠고 마침내 72년 육사에 합격하여 그 꿈
을 현실로 바꿔내게 된다.

79년 9월에 미국 스티븐스 공과대학원에 입
학하여 81년 8월 관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동기생 중에서도 빨리 석사가 된 그룹에 속하
게 됐다. 그는 평소의 뜻대로 진급을 향한 욕망
보다는 몇 개 분야에서 군내의 최고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군대생활에 임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육사시절 암송했던 "육군
사관생도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
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육사생도신조를 그대로
실천했다는 이유로 불명예제대자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그는 왜 최악의 사태가 초래될 것
을 알면서도 스스로 대통령 청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가.

"군내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충격을 받았습니
다. 저 자신도 상급자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일
이 있습니다만 군법무관들조차도 군인의 인권
은 보호받을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렇다면 군대의 인권유린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
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후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임소령은
인권유린의 책임이 바로 군지휘관들의 무책임
한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판단, 희생자를 최소
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군의 실상을 국민들에
게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이렇게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에게 군내의 비리와 모순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
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진급에 특정지역 출신 및 힘있는 장군 그룹
이 우대를 받게 되고, 그 왜곡된 구조를 통해
특정세력이 더욱 힘을 갖게 됐으며, 그 와중에
사병들의 삶은 철저히 짓밟혀진 채 군대가 몇
몇 사람들의 자리다툼 장소로 변해버렸습니

다."

우리 역사를 뒤바꿔놓은 12·12사태가 어떻
게 단기간의 계획으로 완벽하게 성공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철저히 사병구조로 조직된 군
대, 즉 국민의 군대가 아닌 '그들의 군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임택준씨 자신도 그같은 왜곡된 군대구조의
희생자라고 말한다.

88년 박사과정 해외위탁교육생 선발과정
에서 최종합격자로 선발됐으나 하루 만에 결과가
변복되는 바람에 느닷없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 나중에 확인한 결과 합격자인 민아무개 소
령의 형인 모 대령이 자신과 안면이 있는 사람
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 임씨는 군대구조의 모순이 결코 개
인의 군생활 혹은 그의 미래와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고 한다.

"군대를 제 위치로 되돌리는 데 작지만 한몫
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혹시라도 이
런 일들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급당할까 염려하던 끝에, 사건의 결핵날짜를
제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날로 잡았습
니다."

진급일인 88년 7월 1일을 양심선언 공개일로
잡았던 그는 당일의 사정으로 사흘 후인 3일 담
당상관에게 "휴가를 다녀오겠다"는 메모를 남
기고 사무실을 나왔다. 군에서는 무단이탈로
기록되는 행위였던 셈이다.

36일간 육군본부 헌병대 지하영창생활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의 소개로 지금은
고인이 된 조영래 변호사를 찾은 임택준 중령
은 조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일반국민에 대한
공개는 뒤로 미루고 일단 청와대에 청원서를
낸 후 결과를 지켜보기로 합의했다. 함께 근무
하던 한 동료장교는 "혼자 힘으로 높은 사람들
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고칠 수 없으며, 희생

만 당할 것이니 부대에 복귀하라"고 종용했다. 7일 조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청와대 이병기 비서관을 만나 청원서를 전달했고, 이 비서관은 임택준 중령의 신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한다.

"휴가기간 열흘을 채우고 출두하려했으나 주위의 권고도 있고 해서 부대이탈 엿새째인 9일 육군본부 범죄 수사단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며칠 더 몸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이종구 총장에게 보고가 된 후 12일, 청와대측의 약속과는 달리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임 중령은 육군본부 지하의 헌병대영창에서 36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이 사건의 축소와 외부노출을 막기 위해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은 채 징계위를 거쳐 그를 예편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결국 육군 중령 임택준은 그해 10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대문을 나서게 됐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노 정권의 부도덕성을 확인했습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정책에 수렴하고 당사자의 신변을 보장한다는 약속, 그 어느 것도 지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일개 육군중령과의 약속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사건이 철저히 축소 조작된 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차 허위로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종구 총장이 89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배포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택준 중령은 육군본부 정책기획실에 근무하던 자로서 평소 업무에 열정을 느껴오던 중 87년 11월 6일 해외유학(박사과정) 선발시 본인이 탈락된 것에 불만을 갖고 청와대에 진정

한다는 이유로 88년 7월 4일부터 9일까지 근무를 무단이탈, 서울변호사회 소속 조영래 변호사를 통해 군내부에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 이를 청와대에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 유학심사기준의 적용은 물론 군내 부조리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 모두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아직도 험난한 군민주화의 길

그런데 임 중령은 전역 직전 3년간 근무성적이 '상'으로 평가받았으며, 청원서 내용의 대부분이 군내의 인권문제 등에 할애됐고, 군내 부조리는 사건 마무리 후에도 계속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음으로 보아, 당시 이종구 총장의 답변은 매우 궁색한 군당국의 자기변호로 여겨진다.

임 중령은 육사동기회에서 제명되었다. 그러나 임씨의 구속에 대해 군내부에서도 따뜻한 격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헌병대의 한 사병은 "홀륭한 일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위로해주었다. 한 육사 선배는 "양심선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 높은 사람들 정신좀 차리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군생활 17년 만에 육군본부 정문을 나오던 날 차라리 훌가분한 마음이었다고 한다. 많은 군동료, 선배들이 자신의 행위를 내심으로 지지성원한다는 사실을 실감한 임씨는, 사건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 아직도 그는 군대아닌 '민간사회'에서의 새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중령의 양심선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함을 입증이라도 하듯 전화도청과 감시의 눈길을 피해 만난 그는 이제 군인의 분위기를 완연히 벗어나 있었지만 그의 생각 대부분은 아직도 '군'과 '군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말지 91년 3월호)

2) 최후진술—이제는 지난날의 불명예스러운 군의 역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정광민

먼저 이재판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지막 진술에 앞서 이 민족을 사랑하며 또한 이땅의 진정한 자주와 민주 그리고 통일을 온몸으로 갈망하며 산화해 가신 선배 애국 민주열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저는 뛰어난 웅변가나 연설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진술이 다소 서투르고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를 떠난 사람은 그 어떠한 행복이나 안락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오직 사회속에서만 개인의 행복한 삶이 영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떠난 인간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를 이룩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사회를 변화,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오늘날 현대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들의 무한한 힘에 의하여 사회는 발전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국가는, 한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성원들 모두의 힘에 의해 사회를 발전시켜왔을 뿐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천여회(960회)나 가까운 외세의 침입을 받아 왔으며, 민족의 힘이 강할 때는 이를 물리칠 수 있었으나 민족의 힘이 약할 때는 주권마저 빼앗기는 비참한 역

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힘을 기릅니다. 민족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는 힘을 기르며, 이것이 곧 자위적인 무장력인 국방력이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군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국군의 사명에서도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군의 사명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서는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숭고한 사명을 띠고 있는 우리 군은 창군과정에서부터 불명예스러운 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현 국방부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의 전신인 군사영어학교의 대다수 장교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고 계시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일제에게 팔아 넘기던, 일본군 혹은 만주군 출신들이었으며, 민족의 반역자들이 친일 세력들은 그대로 등용되어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방부를 창설하였으며, 또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 민중의 군대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였고, 미·일 외세의 두개의 한반도 정책의 방패막이로 건재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4천만 민중의 민주에 대한 열망마저도 송두리채 앗아간 군사 독재정권의 물리력으로서 민중을 탄압하는데 군이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80년 광주 민주항쟁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보낸 아들, 친구, 형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리라고 그

누구가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이제는 불명예스러운 지난날의 암울했던 군의 역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4천만, 아니 7천만 민중의 편에서 조국의 자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전념할 때만이 지난날의 오류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라도 우리의 군이 진정 국민의 군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군복무를 하는 우리 60만 장병들의 가슴 속에 조국의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군 복무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군에 입대하는 대다수의 장병들은 의무 규정이나 적당히 3년을 때우고 나가자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우리 군이 국민의군대가 되어 있지 못하고 미국의 전략상의 대소전진기지로 우리 한반도 남쪽을 이용하고 그에 우리 군도 역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독재정권의 물리력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저에게 주어진 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사병으로서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군인으로, 비민주적인 요소의 온상인 군에서가 아니라 가장 민주적인 군에서 복무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7천만 민중의 한결같은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결코 군의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 민족의 생존을 내손으로 지키는 일을 거부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강력히 요구하고 주장합니다.

매국적인 정치군인뿐 아니라, 군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말끔히 청산하여 잃어버린 군의 명예를 회복함과 함께 국민의 군대가 되어 자랑스러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국가보안법 관해 기소된 사실

이 부당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사상,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적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으며, 헌법에서도 보장된 자유는 법전속에서만 자유인지, 그리고 조국의 통일은 어느때 실현하려는지 재판장님께 어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는 끊임없는 비판과 비평에 의해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판을 이적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소지하였던 책자나 유인물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던 것으로 합법적인 출판물들이었으며, 저희 애국군인들 몇몇이 모여 저희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담아낸 것이 어찌 적을 이롭게 한단 말입니까? 적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의 민주에 대한 열망을 담아낸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생각이나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재판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님들의 책임으로 비민주적이고 분단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3명이 모여서 만든 "민중군대 쟁취투쟁위원회"는 말 그대로 민주를 열망하는 저희들 순수한 뜻 그대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거대한 조직인 양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여 이적단체로 만들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애국군인이 모인 것은 바로 참된 민주군대 건설을 통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어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군이 이야기한다면 우리 민족을 이롭게 하는 "이하" 단체라 명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듯 순수한 민족의 청년으로 애국군인으로서의 조국의 자주와 민주,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순수한 조국애를 국가 보안법이

라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철창에 가두어 놓는다면 저는 분명히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동포 모두의 소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통일을 방해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조국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5년간이나 이질화된 문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서로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또한 자유로운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열망마저 뿌리채 잠재위버리고 있으며 오히려 조국의 통일을 열망하는 많은 민주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등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또 다시 순수한 저희 애국군인을 가두어 둘수 없을 뿐더러 가장 비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은 하루 속히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저희 애국군인들이 모여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이땅의 군대가 진정 국민의 군대가 되길 염원하며 주장하였던 민족자주군대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자주군대란 말 그대로 이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보호하며 민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자주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란 민족의 주인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군사상 가장 중요한 군사 작전지휘권마저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빼앗겨버려 우리군을 주한 미군 사령관의 허락이 없이는 한발자욱도 움직일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킴과 동시에 군사작전지휘권을 되찾아 명실공히 자주군대, 자주국방을 실현할 때입니다.

다.

둘째, 민주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군내의 구타나 가혹행위를 비롯한 온갖 비민주적 요소의 척결이 시급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땅의 민주를 위해 일하던 애국청년들이 녹화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군에 강제 징집하였다가 온갖 야수적 폭력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의문사의 진상이 밝혀짐과 아울러 그 책임자 역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며, 또 대국민 감시체제인 보안사등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요구를 바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한 교육, 즉 민족의 통일 교육이라든지 자주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인 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셋째, 민중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민중의 군대라고 하면 민중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땅에서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1,000여개나 되는 핵탄두를 저 태평양 바다에 슬어버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시킴으로써 민중의 안전을 옹호하고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쟁과 핵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도 군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겠다는 망상을 가진 매국적 정치 군인들의 처벌과 함께 광주민중항쟁의 발포 명령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로써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아래서 이슬처럼 산하하신 광주 시민의 영령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으며 민중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이땅의 군대는 민족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군대라 함은 민족의 생존 및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존재하는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최대의 숙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군

에서 실시되고 있는 온갖 반공 교육을 철폐시키고 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국이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상태를 깨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침략적 군사훈련인 T.S 훈련 등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민족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민족의 군대가 건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자주군대가 무엇인가와 이를 실현하는 방도까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 민족의 주인이 우리이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인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저의 순수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희들의 뜻을, 국가보안법이라는 가장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가두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주인인 7천만 민중의 뜻을 저버릴 것을 뿐더러 역사의 흐름을 그누구도 막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이땅의 민중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 이 만큼의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군도 이러한 민중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하여 분단된

조국강토가 아니라 하나된 조국강토에서 외세의 침입이나 온갖 위협을 우리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댓가가 충분히 주어지는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고픈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젊고, 무한한 이상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순수한 조국애가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국의 현실은 미·일 외세에 예속되어 있고 군사독재정권이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숙고하기에 저희 가슴은 너무나 뜨겁고, 조국애로 불타오르고 있었기에 강력히 요구하며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 아픈 현실을 우리들의 후배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기에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해방된 조국, 통일된 조국을 위해 힘있게 진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재판장님께서도 조국의 자주와 민주,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이땅의 민중들과 진실된 역사는 저희에게 반드시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3) 최후진술—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일어서야 합니다.

박길남

저는 우리의 군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하는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날이 될 수 있는대로 빨리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민족자주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자주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방에서의 자위란 조국과 민족의 생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무장력을 갖추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곧 이것은 군대를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컨대 국방에서의 자위력이 강했던 민족은 역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형성했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인간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자위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에서의 자위는 곧 그 나라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과연 정치적으로 자주를 이루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자립적인가. 사상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주체적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너무나도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립적이지 못하며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나라가 국방에서의 자위를 제대로 실현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생존이 핵폭풍 전야에 서 있는 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나아가야 할 역사에 대한 책임과 사명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국방에서의 자위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자주군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족자주군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저 자신만의 환상적 염원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실현가능한 문제해결의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민족자주군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군대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군대란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군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군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네가지 작업을 먼저 실현해야겠습니다. 그 첫째는 자유로운 의견개진, 자유로운 상호비판 등을 통한 70만 장병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여기서 강철같은 규율과 엄격한 질서와 절대적인 책임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군대 내에서 횡행하는 폭력과 가혹행위, 강권과 강압주의, 권위주의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70만 장병들의 의식 속에 뿌리깊이 내재해있는 식민지 노예근성을 싸그리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연시하게 만든 그 모든 외세의 군사교육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또한 맹목적으로

로 권위에 복종해온 단순함에서 이제는 벗어나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명령거부권 내지는 명령불복종권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대매국적 정치군부를 모조리 처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현치 않고는 군의 진정한 정치적 중립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보안사를 해체해야 합니다. 군대내 민주화운동을 철저히 말살시켜왔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마저도 결정적으로 가로막아왔던 폭압적 탄압장치이자 감시체계망인 보안사를 해체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4가지 작업을 우선적으로 이루고 그 모든 비민주적 요소들을 완전히 척결할 데 대하여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군대를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자주군대는

둘째, 자주적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적 군대란 침략의 무리들로부터 조국의 산하를 지키고 조국과 민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의 무장력을 갖추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군대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군대를 이루기 위한 작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처음은, 더 이상은 이땅에서의 존재가치를 말할 수 없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합니다. 두번째는 불평등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하여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민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1,000여개 넘는 핵무기를 이땅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국을 비핵지대화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핵전쟁 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의 군사 작전지휘권을 이제는 미국의 손아귀에서 당장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적일 수 없는 북한과, 진정한 형제이자 동포인 북한과 반드시,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제기된 바 있는 “군비축소회담”에 진지한 자세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70만 장병들을 “자주의식”으로 굳게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바로 이 작업을 이룩할 데 대하여 군의 민주화, 자주화, 통일지향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가 비민주적 반민주적 요소가 만연하는 데는 “자주의식”의 결여 때문입니다. 70만 장병 모두가 자주의식으로 굳게 무장할 때 강철같이 단결된 군대가 되는 것이며, 더 이상은 반동이 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정신교육의 이름하에 강행되는 반공교육, 분단교육을 단호히 철폐하고 진정한 자주교육,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이루어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주적, 민족적 군대를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자주군대는

셋째, 민중의 군대입니다.

민중의 군대란 오직 민중에게 충성을 다하며 고귀한 해방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70만 장병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나라의 동포를 총칼로 학살하고 역사적 패륜아를 지도자로 삼고 있는 반역의 군대이기를 단호히 거부하며 떨쳐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으로부터는 진정으로 민중, 곧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근본적 이익과 요구를 위하여 복무하는 참 민중해방군임을 엄숙히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소한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저는 이것을 민족자주군대, 이름하여 정의의 군대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족자주군대의 건설은 이 시대의 요청이자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수한 힘으로 이 위대한 작업을 이룩

할 데 대하여 더 이상은 이땅에서 군대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청년들이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단 한사람의 탈영병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의문의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자기나라의 동포를 총칼로 학살한 욕된 반역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이땅 조국에 민족대단결을 기초로 한 그 위대한 통일국가를 창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민족자주군대입니다. 저는 이러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우리는 군의 비민주적 반민주적 요소의 척결을 위하여 그 너무나도 순수하고 양심적인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무슨

국가를 전복할 중대한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매도하여 우리의 손발을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공포 묶으려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지만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 외침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군대는 민주주의로 갈 수 있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쫓고되고 그에 대한 그 이상의 형량을 언도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민주주의와 조국통일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뜨거운 가슴은 앞으로 훨씬 더 가열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4) 최후진술—부모님을 사랑하듯 조국을 사랑하는것 뿐입니다.

양승균

나는 최후진술에 앞서 지금 나에게 7년의 형량을 구형한 검사선생에게 한마디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검사선생께선 날 빠진 공안의 칼로 진리와 양심앞에 녹슬어버린 칼로 전경해체와 군의 민주화, 자주화를 요구한 본인을 비롯한 양심선언 군인·전경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날 빠진 공안의 칼로 역사와 진실을 막으려 하는 검사선생에게 분노에 앞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본인은, 소위 양심선언 사건이라 이야기되는 아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인이 왜 양심선언을 할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양심선언 군인·전경들이 왜 역사와 민족앞에 양심선언을 했고, 밤거리를 헤메면서까지 경찰 민주화와 전경해체, 군의 민주화, 자주화를 위해 일했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 믿고 모두진술에서 경찰의 역사와 사병화 과정, 전경의 성격과 경찰 민주화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전경생활중 겪었던 실제적 진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내가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음으로 전투경찰에 차출되어 근무하게 된 곳은 과천에 자리잡고있는 정부 제2종합청사 경비대였다. 정부제2청사는 정부의 각종 부서들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추어나 더우나 생존권과 민주적 행정을 요구하는 1민, 학생들의 권리요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매일처럼 이루어지던 시위중에서 지금까지도 이 젊은 가슴에 비수가 되어 지워지지 않고 나의 행동의 많은 부분을 강제하고 있는 경협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가 전경으로 차출되어 막 전경 생활을 시작했을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1986년 1월 추운 겨울날의 일이다 내무반에 비상벨이 울렸다. 한무리의 젊은 전경들은 마치 적을 섬멸하기 위해 출동하는 특수부대처럼 신속한 동작으로 출동을 했다. 물론 젊은 전경들의 손에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봉이 들려져 있었다. 젊은 전경들이 이렇게 완전무장을하고 막아서야했던 좌경, 용공세력은 다른아닌 한 무리의 맹인들 이었습니다. 적지않은 시간이 지나서야 안 일이지만 그 맹인들은 침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었는데 보사부 당국에서 그분들과 아무런 사전 논의나 생계 대책없이 침술을 금지시킴으로써 그분들과 가족의 생존권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당한 맹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사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정부제2청사를 찾아 생존을 위한 의사 표시를 하게된 것이다. 그런데 선진조국이니 국민건강을 밥먹듯 얘기하던 보사부 장관은 맹인들의 시위소식을 듣고 청사의 다른 통로를 통해 출행량을 쳤던 것이다. 높으신 장관나리께서는 물러설곳 없는 맹인들의 생존의 절규조차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위정자들에게는 이럴때를 대비해서 국민의 혈세로 육성한 강철군화인 전투경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젊은 전경들의 인의 장벽에 막혀 보사부장관의 그림자조차도 볼수 없었던 맹인들은 전경들의 인의 장벽앞에서 이런 구호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맹인으로 난것도 서러운데 생존권박탈 웬말이나!”라는 구호와 “사나이로 태어나 맹인이됐다만, 투쟁과 투쟁속에 배운

침술”이란 젊은 노가바에는 앞모이며 수십년 살아야 했던 맹인들의 한과 분노와 설움이 뒤섞인 맹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전경들과 경찰들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앞 모보는 맹인들의 생존의 외침은, 자주적 인간이기 위한 절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자했던 노동의 욕구는 젊은 청년들에게, 아니 정치관료와 군사정권에겐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들의 삶의 진실이, 생존의 부르짖음이 전경들과 경찰들에 의해 조롱받고 짓이겨져자 앞모보는 맹인들도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인 지팡이를 전경들을 향해 내려치지만 허공을 맴돌고 보이지않는 눈을 껌벅거리며 눈물을 삼키는 맹인. 썸그라스 밑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맹인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아버지도 없니? 당신들은 어느나라의 경찰입니까?’ 하지만 다음순간 그 맹인들은 아스팔트위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맹인들의 항의가 며칠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맹인들은 젊은 전경들을 당할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분들은 전경들의 복장과 장비조차도 본적이 없는 맹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의 투쟁은 무척이나 끈질겼다. 나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끈질길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고 있다. 그분들은 직장을 잃길수도, 직종을 바꿀수도 없는 맹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분들에게 물러남이란, 타협함이란 그분들 자신과 사회단위의 기초인 가족의 파멸이기 때문이다.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 한 인간의 자주적 삶을 뒷받침해주는 노동을 통한 생존권을 지키려했던 우리의 형제며 이웃이며 아저씨였던 맹인들은 약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사회와 정치관료들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했고 박탈당한 생존권을 찾기위해 지팡이를 더듬으며 나섰던

인간이기위한 길은 군사정권의 강철군화, 반인간의 상징인 전경과 경찰에 의해 철저히 짓이겨졌습니다. 앞모보는 맹인인 그분들이 죽음으로 찾고자 했던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민중의 정치세력화도 아닌 생존과 가족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권은 앞모보는 맹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누른 위에서 기생할수 있는 기생정권이였다. 본인은 이렇게 기생정권에 의해 철저히 짓이겨지는 모습으로 돌아가던 맹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배고픔과 지친 모습으로 전경들에게 깨진 다리를 절며 돌아가던 그분들 옆으로 퇴근길에 정부제2청사의 정치관료들의 고급자가용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현상이겠지만(?)이 대비되는 두모습은 한 젊은 전경의 가슴에 끊임없는 물음을 던져왔다. 우주와도 바꿀수없는 맹인들의 그 절규는 한 젊은 전경에게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전개하게 만든다.

외세에 의해 민족의 자주적 삶이 말살된 이 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적도 모른채 군에 입대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동족의 가슴에 대검과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형제에게 그대운 최루탄을 난사하기위해 군에 입대한것이 아닙니다. 이땅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한것은 외세로부터 조국의 생존을 지키는 자주 군인이기 위해였고, 노동자의 신성한 노동과 인간적 삶을 지키기위한 자랑스런 군인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한의 군대의 성격과 임무는 차체하고라도 본인을 비롯한 수많은 군인들이 시위 진압부대인 전투경찰에 강제 차출되고 군사정권과 외세의 수족으로 외세의 정치·군사·경제적 수탈을 보조하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주화의 길을 가로막는 강철군화가 되어 부모형제에게 최루탄과 경찰봉을 돌려 주지않으면 안되었고 가해자인 동시에 본질적으로 피해자인 전투경찰 자신들조차도 의문의 죽음이되고 징역을

살지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 인간과탄의 과정 속에서 전투경찰 스스로의 인간성마저도 파괴되지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내가 위해서 전투경찰에 착출된것이 아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강제 착출된것이긴 하지만 서있서는 안될자리에 서있음 역시죄인의 자리며 반역의 자리가 한 젊은 전경은 역사 앞에 죽음으로써 속죄하려고 죽음으로써 전투경찰의 해체와 조국의 민주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부모님께 발송했던 기억이 난다.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불효만큼 불효가 없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보다 더크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바로 조국입니다. 이몸 비록 먼저 가지만 반드시 돌아와 군사정권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듯 조국을 사랑하는것 뿐입니다. 이렇게 유서를 써놓은 젊은 전경은, 아니 본질적으로 군인인 젊은이는 자신의 동맥과 인대를 두번 잘라 손목과 허벅지를 타고 내리던 붉디 붉은 붉은피로 민족의 염원인 이 땅의 민주와 인간적 삶을 하얀 타이루백안에 썼습니다. 그젊은 전경은 반민주를 거부하며 민주와인간적 삶을 염원하며 죽어갔다.

하지만 나는 죽지 못하고 근무조에 의해 발견되어 수술끝에 목숨을 건졌고 문제의 확대를 바라지않은 경찰당국에 의해 가택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귀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수없었고 불구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께서는 부대에 찾아가 귀대를 연기해줄것을 간청했지만 부대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날 돌아오시던 나의 아버지의 손에는 소주와 오징어가 들려져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술잔을 받았 습니다.

나는 그 소주잔 위로 떨어지던 눈물의 의미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을 어떠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전투경찰대 속으로 보내야 했던 이땅을 살아온 70노구의 아버지의 분노의 눈물을 말이다.

또한 나의 눈물은 민주와 인간적 삶의 반대편이 되어야 했던 참회의 눈물이며 군인이고 전경이며 한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시작의 눈물이다. 나는 그이후로도 21개월의 전경생활동안 전경 내부에서 경찰 민주화를 위해 작은 실천들을 계속했지만 한개인의 행위와 몇몇 전경들의 실천이 이제는 사회화되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개적인 양심선언을 통해 전경해체와 경찰의 민주화 조국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나는 군사정권과 외세의 사병임을 거부하고 시위 진압부대인 전투경찰의 해체와 군의 민주화실현을 통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우주와도 바꿀수없는 인간의 자주적 삶을 요구하고 실천했던 행위는 양심과 역사에 입각해 자주적 인간이기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국민 범감정에 의한 합법임을 밝혀 둡니다.

그러기에 나는 선생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전경대설치법으로 나에게 유죄를 선고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비합법이 반드시 반역사라 믿지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외세와 지배세력의 이해와 요구에 반영이고 총칼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다면 법을 어김은 민주와 참역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선생들에게 나의 죄를 깎아달라 바겐세일 해달라 사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역사의 법정에서 서있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에 와계신 사랑하는 어머니!

이젠 울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승균이의 어머니일 뿐만아니라 민주와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이법정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에게 탈

영병의 용공의 낙인을 찍는다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단지 노여워 하십시오. 그러나 역시 당신의 따사로운 품에 민주경찰을 사랑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사랑한 자랑스런 아들을 안겨드릴 것임을 이 아들은

감히 역사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이 반역의 땅에서 이법정에 설수있는 아들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989년 법정에서 양승균

5) 편지글-누구보다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께

<구속된 아들의 석방가 수배된 아들의 수배해제를 위해 어려운 농성투쟁에 들어가시는 어머니들과 가족들께 애국적 양심선언 군인·전경 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드립니다.>

어머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핑도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어쩌면 저희는 진정 불효자인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아들 잘 되기만을 바라시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던지실 어머니의 사랑과 소박한 꿈을 저버린 저희들은 진정 불효자인줄도 모릅니다.

군에 입대를 하는 저희들을 보며, 이별의 슬픈 눈물과 걱정의 한숨을 허공 가득히 쏟으시면서도 군에 갈 만큼 장성한 아들의 손을 대견스럽다는 듯 꼬옥 잡으시고, 몸 조심하라는 말씀을 수십번 수백번 하시던 어머니!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기관 요원들에 의해 죄인 취급을 받으며 '당신 아들은 탈영병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빨갱이 사상에 물든 놈이라고, 빨리 신고하라고' 온갖 헐박과 욕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결코 훈련이 무서워, 시위 진압이 두려워 도망친 비겁한 탈영병이 아닙니다. 구

타와 기합, 작업이 힘들어서 수배자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늘 참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삶이 되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올바르게 떳떳하게 살려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군인으로 전경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 곳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의로와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병역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군부독재 정권의 방패막이로, 미제의 용병으로 전략시켜 부모 형제의 가슴을 짓밟고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라고 강요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루도 걸르지 않는 구타와 기합, 친구를 적으로, 부모형제를 적으로, 한 동족을 적으로 강요하는 무자비한 시위진압 동원과 이데올로기 교육, 인간의 자주성을 철저히 말살하는 체계...

저희들은 더 참을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고 더 이상 부모형제의 가슴을 짓밟는 짐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선언을 하고 난 뒤, 최초로 진정한 기쁨과 참 인간으로서의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이 땅의 군대가 외세의 침략과

억압으로 부터 조국을 보위하고, 온 겨레의 염원인 통일과 민주화를 앞당기는 그런 군대, 즉 민족 자주군대로 탈바꿈되기 위해 투쟁을 해왔습니다.

꿈에도 보고픈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들을 볼 수도 없고, 잠자리조차 편치 못한 숨막히는 수배 생활, 연료값 천원이 없어 하루를 쫓쫓 굶고 쌀이 떨어져 반찬 하나없이 라면을 끓여 허기를 면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웃음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조국을 사랑한다는, 내손으로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고 진정한 민족의 군대, 민주 군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소박한 소망으로 그 역경을 견디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끝까지 민중을 압살하고 조국을 팔아 넘긴 노태우독재 정권에 의해 소중하던 다섯 동지가 연행,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어머니!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군대, 민주군대를 만들어 보자는 소망이 어찌 범법이 될 수 있습니까?

진짜 죄인은 수많은 젊은이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조국을 등지게 한 군부독재가 죄인입니다. 미제가 죄인입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애국학생 이철규를 죽이고 의로운 우리 형제들을 연행 구속한 노태우가 죄인이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저희가

저희 동지들이 어찌 죄인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저희들은 결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된 이상철, 유진태, 황원진, 정균한, 노재학, 연성흠, 정광민, 김상철, 박길남 동지의 드높은 사랑과 뜻을 이어 민족자주군대의 건설에 더욱 헌신할 것입니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어려운 농성을 하셔야 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그 모습은 지금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끝내는 노태우군부 독재 정권의 가슴을 가르는 비수가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바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농성투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경 민주화를 위한 대책위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해방되는 바로 그날 저희들의 어머니 품에 안기어 어리광을 부리며 해 맑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를 위해, 이 땅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어머니의 노래를 가슴껏 부르며 승리의 그날을 위해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는...’

그날이 오면 어머니와 저희들 벅찬 사랑으로 부둥켜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반미항전 45년 6월 15일

애국적 양심선언 군인·전경아들이

양승균, 조규봉, 임성호, 서영환, 류범희, 이하일, 장문걸 드림

6) 편지글-전국의 백만청년학도에게 드리는 애국적 군인·전경의 편지

‘저희는 반외세자주화투쟁의 핵심은 군사에서의 자주화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외세 사대매국세력의 분열주의적 계략과 침략에 의하여 찢겨진 이 산하에 눈부신 사월의 봄빛이 찾아와 피땀 흘린 진달래 원혼은 봄을 선구하며 분단조국 45년의 언 땅을 뿌리박차고 일치한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엄숙한 부활과 맹아를 선언하는 이 계절에 반미·반독재 통일구국투쟁에 열사헌신하는 백만청년학도 동지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신뢰, 그리고 뜨거운 조국애를 나누게 됨을 먼저 감사드리며, 이 글을 씁니다. 머리 좁은 글, 부디 많은 동지적 비판과 상호혁신이 수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라의 군대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본토대이자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과 민족자주를 지주하는 자위적 무장력이라고 믿습니다. 즉 한나라의 민족자주군대는 자기나라 민중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조건이자 힘입니다. 군사에서의 자주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어떠한 자주정치도, 자립경제도 이룩할 수 없으며, 더우기 그 어떤 사회변혁이나 민주화도 진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사회변혁운동 과정에서 군대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부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침략적 외세에 의하여(신)식민지체제로 전락한 피억압민족에서의 자주국방은 외세침략기를 옹정하고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을 실현하는 제1의 힘이고, 따라서 국방에서의 자주화는 필연적인 선결과제로 위치지워지겠지요.

그러나 이 땅의 군대는 어떠한지요. 미제국주의의 철저한 용병으로 전락하여 외세의 이익과 침탈을 옹호하고 독재정권의 안정적 집권유지를

위한 폭압적 물리력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의 시작은 1946년 1월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조선국방경비대의 구성은 미군정청의 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해 설치된 군사영어학교 출신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의 경비대 창설목적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인 반혁명 및 사회주의권 봉쇄정책에 따른 일환에 불과한, 즉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승패를 판가름할 이데올로기 전장이자, 인류의 운명을 시험하는 경기장’인 한반도 남반부를 대소 전초기지 보루로서 위치지우기 위한 계략의 일환이었지요. 그리하여 한국군은 미군정의 용병이 되어 진보적 애국인사와 민족자주통일국가 건설을 요구하는 민중들에 대한 피비린 내리는 거역의 학살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침략적 외세의 이익과 요구에 의하여 발족된 한국군은 그 후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의 비호와 전쟁, 그리고 극우적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물리력을 급속히 강화하였고, 마침내는 외세와 결합한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반동적 군부는 정치·경제부문에 적극 개입, 강력한 물리력을 근거로 지배통치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외세의 용병, 군사정권의 친위사병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러한 한국군은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로버트의 말처럼 “미국의 투자를 지켜주는 훌륭한 보초병이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는 고용군인 군대로 위치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민족자주권을 가진 한 나라는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일순에 분쇄하고 근로대중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창조적 노동을 보위하기 위하여 국민의 군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주독립국가에서는 민족자주군대의 핵심이 되는 군작전지

회권을 필연적으로 소유합니다. 즉 작전지휘권은 군의 통수권으로서 자주독립국가 고유의 주권이자 한 나라 군대의 질을 결정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대매국세력들은 1950년 7월 대전에서 체결된 통수권 이양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자주독립국가의 핵심주권인 작전지휘권을 오히려 “한국군이 귀하의 휘하에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협정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의해 남한군의 자주권은 미국이 움켜쥐게 되었고, 그 결과 남한군의 작전지휘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니게 되어 그의 사전동의 없이는 개미새끼 한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애하는 반미구국투쟁의 선봉 백만청년학도 동지 여러분!

그러나 더욱 절박한 상황은 이 땅 분단의 원흉인 미제가 획책하고 있는 핵침략 전쟁연습입니다. 침략자들은 천여기의 각종 핵탄두를 한반도·남반부에 저장하고는 오늘 또 다시 팀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핵전쟁연습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핵폭풍 전야에 저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절박한 지점에 있고 자주·민주·통일의 애국적 깃발은 동지들의 열열 가슴에 민족자주군대쟁취하는 불사불명의 일치한 투쟁방향으로 나부끼고 있습니다.

무릇 모든 투쟁의 발로는 자주성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그 주장이야말로 이 땅 최고최대의 휴머니즘이자 애국주의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때 자주성을 실현하는 주인은 그 자신인 것입니다. 민족자주군대쟁취에 멸사헌신하기를 결의한 저희들은 이땅의 민족자주는 침략적 외세를 물리치고 국방에서의 자주성을 쟁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민족자주군대쟁취의 동력 역시 6십만 병사를 포함한 4천만 민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핵심주체는 6십만 병사들입니다. 미완의 4.19혁명경험이나 80년 광주

민주항쟁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도 큰희생을 치루며 체험했습니다.

기층민중의 잠재된 변혁에너르기가 폭발적으로 고양되어 사회변혁이 진행된다면 군대도 자연스럽게 질적전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뼈저린 경험은 바로 그것을 대변합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땅 민주주의 변혁과정에서 군대의 자주화·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에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자주군대쟁취의 핵심주체는 6십만 병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내의 주체역량은 너무도 박약한 실정입니다. 민족자주군대의 핵심은 사병과 장교들의 민족자주의식일 것입니다만 거의 모든 사병과 초급장교들의 민족자주의식 정도는 전무할 정도입니다. 식민지 잔재의 악습인 가혹한 구타와 기함, 그리고 반공반복의 극우적 이념교육이라는 파쇼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군대내의 자주민주역량은 무참히 짓밟히고 개량화되어 버린 까닭입니다. 비록 초급장교나 신병 중에서 민족자주의식을 갖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치밀한 감시체제와 보안망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고립되어 각개격파 당하고 맙니다. 군대내의 의문사 열사들의 죽음은 바로 그러한 감시망과 보안사찰을 폭로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병과 초급장교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열정과 잠재적 자주화·민주화 의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 땅 4천만 민중의 아들이며 식민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89년 1월 초에 있었던 ROTC 초급장교들의 ‘명예선언’은 대다수의 사병과 초급장교들이 지니고 있던 잠재적 자주화·민주화 의지를 실현한 불멸의 불꽃이었습니다.

경애하는 백만청년학도 동지 여러분!

반외세 자주화투쟁은 애국민주운동의 기본임무일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는 반외세자주화투쟁의 핵심은 군사에서의 자주화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군사에서의 자주화투쟁은 반독

재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발양시키고 촉진시키는 주요한 매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에서의 자주화투쟁의 핵심은 군대내에서 자주의식으로 결합된 사병들 스스로의 자주적 진출입니다. 민족자주군대 건설이라는 장기안목 속에서 이제는 군부정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군대내에서도 민족자주의식으로 각성된 선진적 청년들이 뛰어들어 몽둥이 규율과 반동일적 반공반복논리가 횡행하는 군대를 건전하고 통일지향적인 군대로 분위기를 쇄신하여 애국군인의 지위와 역할을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애국애족에 멸사헌신하는 청년학도 동지 여러

7) 편지글 - 시위진압 거부한 이스라엘 병사에게

카르몬씨! 옥중에 있는 당신의 건강은 어떠한지요. 이렇게 글로써나마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군사독재정권의 안정적 집권유지를 담당하는 사병이기를 거부한 양심선언을 한 죄로 당신처럼 옥중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의 시위진압병사(=전투경찰)들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접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우리나라의 한 신문에서 ‘세계 최정예의 이스라엘 군대에서 최근 식민통치군의 역할에 반발하여 양심에 못이겨 일단 자살과 근무지를 이탈하는 병사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신과 같은 ‘양심범’이 현재 94명이나 되며,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학살과 진압의 반인간적 행위에 대한 양심에 못이겨 88년 한해 동안 45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는 놀라움과 양심수호의 준엄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인 가자 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 놀라움과 양심수호의 준엄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점령

분의 민족자주군대 건설투쟁에 가열찬 참여를 기대하면서, 자주·민주·통일의 광장에 애국전사의 깃발을 드높이 지켜든 채 백만 민족자주일꾼과 함께 진군하기를 비나리 합니다.

“백만되어 진군하소서, 침략외세의 가슴에 응징의 불화살 날리면서”

분단조국 45년 3월 27일

- 전경해체투쟁위원회 : 양승균, 연성흠, 노재학, 조규봉, 임성호
- 민중군대쟁취투쟁위원회 : 정광민, 김상철, 박길남

지역인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서안 지구의 과업투쟁과 이스라엘의 축출을 외치는 아랍민중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진압을 거부하고 양심과 수난의 길을 스스로 택한 당신과 옥중 병사동료들에게 아낌없는 경의와 형제애적인 연대를 헌사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그러한 용기와 양심이야말로 평화애호, 민중생존, 민족자주라는 인류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당신이 당신의 조국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식민주의의 총칼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덜 사랑한 것은 조국이 아니라 침략적 식민주의였습니다. 당신은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든 팔레스타인 점령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빛나는 양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그러할진대, 저희들의 같은 핏줄인 형제에 대한 시위진압 거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솔직히 우리가

전경생활이 힘들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양심 선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가혹한 탄압과 구타와 기합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향적 정신교육이나 시위진압훈련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망이고 고통이었던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형제, 친구동료들을 무참히 진압하여야 하는 반양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허리 잘린 우리 조국의 또다른 분단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카르몬씨! 그러한 우리 조국현실의 비극은 군사독재정권이 전투경찰을 집권유지 수단으로 악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였던 병사의 사명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민중의 이익과 민주를 지키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국방에 동원되어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탄압하는 침략적 식민주의에 악용되듯이, 우리의 많은 젊은이도 전투경찰로 강제 차출되어 자신의 부모형제를 진압해야 하는 독재정권의 파시즘적 통치에 악용되었습니다.

카르몬씨! 최근 세계는 당신이 잘 알다시피 민주개혁과 평화기류에 의하여 외국주둔군 철수와 군감축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폴란드·동독·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시위진압경찰과 정보경찰이 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젓과 꿀이 흐르던 팔레스

타인에서는 오히려 테러와 보복학살로 피와 눈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물리력의 구축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민중운동 탄압을 위하여 1만3천여명에 달하는 81개 중대병력이 증설되었으며, 또 얼마 전에는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시위진압장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한대당 4억 원쯤 하는 '워터캐논', 물대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한국민중이 요구하는 것은 첨단 시위진압장비 혹은 전투경찰 증가가 아니라, 경찰민주화와 전투경찰 해체입니다. 물론 당신의 나라에서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것이겠지요. 카르몬씨! 하지만 시위진압장비만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랍민중에 대한 탄압을 거부하는 당신의 양심은 세계의 모든 정의와 평화와 민주세력의 가슴속에 자리하는 법이니까요. 당신의 양심은 곧 세계평화의 공용어입니다. 동시에 민중운동 탄압을 거부하는 모든 병사의 상징입니다.

한국의 7만 전투경찰 대원들에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양심의 이름으로 민주의 염원으로……

1990년 3월

분단의 땅 한국 서울구치소에서
양승군, 연성흠, 노재학(양심선언 전경)

8) 편지글—고 강경대 열사의 죽음을 접하며 구속된 백골단 형제들에게 드리는 글

당신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두어깨에 짊어진 이 시대의 '부정의'를 당신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진압방패 앞에 홀어져 쌓이는 돌무덤에 당신들은 원초적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힘주어 움켜쥔 쇠파이프에 그 분노를 실어 당신들과 같은 또래의 한 젊은이를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살인 행위에 대하여 물론 '변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위진압시 학생들이 던진 돌과 화염병에 동료대원들이 다치면 자신들도 모르게 흥분하게 된다고..., 강요된 살인진압 명령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쩔수 없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다 보니 관성화된 폭력 속에서 신경이 무디어 지고 그 속에서 정말 재수없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그런 살인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 독재정권의 노예일 수 밖에 없는 운명에 분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국방의무라는 미명아래 왜 당신들이 전경(백골단)으로 강제 차출되어 그러한 고통을 느껴야 하는지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들은 독재정권의 희생양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직접적인 살인행위에 대해 변명으로도 일색했습니다.

당신들은 또한 자신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독재정권에 분노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정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들의 동정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겠지만 당신들이 이

시대의 부정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정에 맞서 투쟁하려 하지 않는한 당신들은 역사속에 영원한 살인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독재정권은 이땅의 순진 무구한 젊은이들을 들로 갈라놓고 서로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어가면서 까지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폭압적인 정권유지를 위하여 전경과 학생 모두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이땅의 같은 젊은이로서 우리가 왜 서로 갈라져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까? 전투경찰이란 도대체 엇입니까? 누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전투경찰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일 수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허울속에 군의 일부병력을 합법적(?)으로 빼돌려 만든 (준)군사조직 전투경찰은 독재정권의 방패막이를 위한 '대국민 탄압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불법적으로 강요된 살인진압명령은 필연적으로 '강경대 학생 폭행 살인 사건'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속된 당신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역 전경(백골단)들도 언제든지 당신들과 같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킨 사람은 멀쩡한데 어쩔수 없이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신들만 구속되어 처벌을 받고 있는것입니까? 전경대 설치법 2조3항에 보면 전경의 임무가 '대간첩작전 임무의 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경의 시위진압은 불법이고 저들도 두번씩이나 불법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을 살인자로 만들은 불법적인 시위진압, 그것도 공격

형 살인진압을 강요하고 명령한 자들이 당연히 먼저 구속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당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애초에 군에 입대한대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신들은 절대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당신들의 잘못이라면 그 불법적인 살인진압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속에서 강요된 폭력, 일상화되고 관성화된 폭력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어린 학생들에게 휘둘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참회해야만 합니다.

고 강경대 열사 앞에서, 역사와 민족 앞에서 당신들의 직접적인 잘못, 그것이 누군가 시켜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인간 본연의 양심으로서 참회해야

만 합니다. 그 참회는 당신들의 재판과정에서 진정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모두진술이나 최후진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양심을 되찾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회선언, 양심선언은 이 오욕의 역사 속에서 고 강경대열사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 부활의 역사 속에서 당신들을 독재정권의 희생양이 아닌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1991년5월 13일

양심선언 전경 양승균, 연성흠

양심선언 백골단 유성호, 정균한, 이상철, 황원진 드림

9) 성명서—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결성 선언문

사회의 부정의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 부정의의 출발이 공직사회의 불법과 부정비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불균형적으로 성장한 지배권력의 비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뿌리내리면서 병들은 공직사회와 타락한 공직자들의 품성을 낳았고,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정은 합리적 차원에서의 사회정의 실현조차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썩을대로 썩은 사회 부정의의 정치적 강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자성의목소리와 양심의 행동에 커다란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근본적인 사회부정의의 해소와 이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은 먼저 공직자들의 도덕성 회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건강한 공직사회의 건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지배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대변할 수 밖에 없었던 공

무원, 군인, 경찰들이 자신들을 병들게 만들었던 지배권력의 부당한 명령과 노예적 굴종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은 공직자가 나서서 척결해야 한다.

87년 6월의 민주화 항쟁 이후,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부정의의 척결, 그리고 공직자들의 인간적이고 자주적인 삶의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지배권력의 회유와 압박, 그리고 그들이 던져주는 떡고물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불법행위와 부정비리를 폭로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오욕과 불명예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양심선언 공무원, 군인, 경찰만도 4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지배권력은 이러한 공직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행위에 대하여 정치보복적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부정비리를 은폐,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계속되는 폭로를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비열한 작태인 것이다.

이러한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접하면서 그동안 양심선언을 통해 건강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은 이제 개별적인 행동들을 지양하고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공무원, 군인, 경찰들의 힘을 한데 모아나가기 위하여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약칭 양심선언 모임)을 결성한다.

우리는 먼저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 실현 및 공직사회의 불법과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역대 지배권력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공무원, 군인, 경찰을 불모로 삼아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위적이고 불법적인 공권력의 사용과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로 표면화되었으며 이 사회를 병들게하는 기본요인이 되고 있다. 대 국민 전투를 위한 전투경찰의 불법적 운용, 보안사(현 기무사)의 대 국민 불법사찰, 감사원 비리, 대대적인 군 부재자투표 부정과 관권 부정선거 등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공직사회 건설에 있어서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는 사회부정의의 해소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양심적인 공직자와 국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둘째로 공무원, 군인, 경찰들의 도덕성 회복과 그들의 인간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지배권력의 불법행위와 부정비리를 도맡아 처리해 오고 있다. 이 과

정에서 공직자들은 일정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법 부정행위를 국민들에게 자행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상관이나 권력자들에게는 눈치와 아부속에 노예적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직사회의 부정비리가 일정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이를 책임져야만 하는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양심과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인간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위해 그들의 기본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모든 공직자에게는 상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권과 거부권이 주어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당한 처우나 보복적 탄압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기무사(전 보안사)의 녹화사업, 정치공작속에서 프락치 활동을 하거나 기무사의 정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임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아니다. 또한 시위진압에 동원되고 있는 전투경찰의 임무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명백히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 수행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권리 침탈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인들도 「신문」(각 일간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재소자들도 자유롭게 보고 있는 신문을 군인들만 못보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인들은 단지 표만 찍는, 투표하는 기계가 아니다.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당의 공약이나 후보, 그리고 지금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군인들도 자유롭게 신문을 볼수 있어야 하며 군 당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권장해야 한다.

우리는 셋째로 공직사회의 불법과 부정비리

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자나 건강한 공직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들에 대한 정치 보복적 탄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불법과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저항권』에 해당하며 이는 또한 형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행위이다. 양심선언을 위한 기타의 행동은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 파괴'하고 있는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국민 앞에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으로 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양심선언자의 탈영과 수배생활은 공권력의 보복적 탄압을 모면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서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심선언자에 대한 처벌은 그 내용의 진실여부나 사회공익에 비추어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이러한 양심선언자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공직사회 내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선언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불법과 부정

비리를 폭로한 내용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양심선언을 하고 수배중인 사람들에 대한 조속한 수배해제와 부당하게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공무원, 군인, 경찰의 완전한 중립화의 실현과 공직사회의 부정의 척결, 그리고 공직자의 인간적이고 자주적인 삶의 실현 및 양심선언자의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건강한 공직사회의 건설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공무원, 군인, 경찰의 단결된 힘으로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노력에 이바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전진할 것이다.

1992년 10월 19일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10) 성명서

한준수 윤석양 석방과 양심선언 보호법 제정 및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바라는 660인 선언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양심선언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1. 나라사랑의 일념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공직자·군인의 삶을 실현했던 한준수 전 연기 군수와 윤석양 이병을 석방하라.

지난 3.24총선시 대대적인 관권부정선거가 진행됐음을 밝힌 전 연기군수 한준수 씨의 양심선언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관권부정

선거의 실상을 낱낱히 고발한 양심의 호소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를 구속하고 상급책임자인 이종남 도지사는 불구속 처리함으로써 밝혀진 진실에 대한 미봉책으로 일관했으며 이는 공권력내의 불법을 밝힌 양심선언인사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지난 '90년 10월 4일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여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의 경질 및 공권력내의 정의를 세우는데 기여했던 윤석양 이병이 수배생활 2년만인 지난 9월 23일 기무사 헌병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어 3년형이라는 보복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준수 윤석양 이병의 예에서 볼수있듯이 양심선언을 통한 부정비리의 폭로는 어김없이 새로운 제도의 창출로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한준수, 윤석양 이병을 비롯한 양심선언 인사를 감옥에 가두어 놓은 채 중립내각의 구성과 군당국을 비롯한 정부 각부처의 정치적 중립선언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립내각과 군당국이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한준수·윤석양 이병 등 양심선언 인사들 석방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권력 내부의 불법과 부정을 고발했던 양심선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심선언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양심선언이 계속되었다.

'87년 7월 8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전투경찰의 해체를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양승균 상경 이후 공권력의 불법을 고발한 양심선언은 47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12명의 수배자를 제외한 35명의 양심선언인사중 24명이 구속되었다.

양심선언인사들의 요구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삶을 요구하는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속된 공권력에 의해 구속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공권력내의 불법을 고발한 양심선언인사들에 대한 무차별한 인신구속은 공권력내의 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공직자사회의 내부의 움직임

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공무원 군인 경찰의 부정을 극복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삶을 실현하기위해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한 양심선언은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양심선언 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양심선언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3. 건강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정치적 중립을 촉구한다.

사회의 부정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를 위한 움직임을 동반한다. 그 부정의의 출발이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에 의해 잉태되고 공직사회의 불법과 부정으로 귀결됐음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권력형 비리가 구조적으로 뿌리내리면서 병들은 공직사회와 타락한 공직자를 낳았고 이러한 부정은 최소한의 사회정의 조차도 철저히 거부해왔다. 근본적인 사회부정의 극복과 이를 통한 사회정의실현은 먼저 공직자의 도덕성 회복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6조)로서의 건강한 공직사회 건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권력형 부정과 비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 군인 경찰들이 자신을 병들게 했던 부당한 명령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공복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어야 하며, 제도적·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역할이 정치적 시류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공무원 군인 경찰의 신분보장과 기본적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의 관심속에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거부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시에는 공직자 스스로 고발하는 공직자의 실천을

통해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공복으로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는 실현될 것이다.

1992년 11월 16일

660인 선언 서명인사

• 기독교 인사

김찬국(기독교인권위 위원장) / 김동완(국민회의 대변인) / 조화순(여성단체연합 회장) / 이명남(기독교인권위 부위원장) / 김경남(기독교인권위 사무국장) / 김영주(NCC통일위원회 사무국장) / 지방 인권위 위원장단 / 김제민(경북) / 김정웅(충북) / 손명철(태백) / 구본한(원주) / 여유태(춘천) / 등 258명

• 불교계 인사

송월주(불교인권위 위원장) / 한상범(불교인권위 공동위원장) / 청화(실천불교승가회 의장) / 지선(통불협 의장) / 진관(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등 125명

• 천주교 인사

오영호(사제단 총무)의 사제단 전체

• 법조계

유현석(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고문) / 윤종현(윤석양 변호인단) / 천정배 / 이덕우 / 임중

인(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법률자문위원) 등 25명

•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이문옥(회장) / 양승균(총무) / 연성흠 / 서영완 / 이지문 / 황원진 외 14명

• 윤석양후원사업회

김동완(회장) / 민인숙(윤석양 어머니) / 황수남(정광민 어머니) / 고경애(이원섭 어머니) / 박윤순(고대성 어머니) / 박홍규(박선진 어머니) / 지두석(지성룡 아버님) / 황경연(이한수 어머니)

• 사회단체

신창균(국민회의 공동대표) / 김근태(국민회의 집행위원장) / 권종대(전국연합 상임의장) / 고광석(전국연합 의장) / 황인성(전국연합 정책실장) / 김정숙(민가협 회장) / 박정기(유가협 회장) 등 230명